

총학, 점거농성 50일만에 해제

병원·교육환경관련 요구 합의 ... 개원 전까지 논의 필요

학교당국과 총학생회(회장=주진안·국교4)가 지난달 30일 최종 합의를 이끌어냄에 따라 50여일 동안 진행된 총장실 점거가 마무리됐다. 양측은 공개 협상 이후 7차례의 비공개 실무협상을 통해 의견 차이를 좁히고, 최종합의를 했다. 최종합의의 도출 직전까지 총학생회는 요구안 중에서 '학교회계에 포함된 병원회계를 따로 분리할 것'을 놓고 학교당국과 의견차이를 보였으나, 학교측이 제시한 사립학교법 제29조 '부속병원회계는 학교회계로 구분한다'는 조항에

따라 요구안을 수정·합의했다. 이에 총학생회는 합의안 수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학생대표회의를 진행했고, 참석자 과반 수 이상이 동의함에 따라 총장실 점거를 해제했다. 총학생회 대표는 다음날 총장을 비롯한 학교측 대표와 면담을 통해 불교병원을 성공적으로 개원하는데 노력할 것에 합의했다. 양회창(반도체4) 부총학생회장은 합의 내용과 관련해 "교비·병원회계의 예·결산 공개를 통해 등록금이 병원건립에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불교병원 개원 시기=학내 제주체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적절한 시기에 개원한다 △등록금 사용의 투명성=교비회계와 병원회계를 분리하고 두 회계의 예·결산을 공개한다 △등록금 책정 과정= '등록금 책정 협의회' 구성을 위해 2학기부터 준비모임을 갖는다 △인상된 등록금=교육환경개선에 10억원을 책정해 학생회 요구가 있을 때 검토 후 집행한다 △교육환경 개선=전 강의실 반사형 형광등 교체 및 증여 설치 등 △공간문제 해소=법대 이전·신도서관 3층 열람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주진안 총학생회장은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불교병원의 수익성·재원마련 부분에 대해 학내 제주체가 참여해 논의하는 자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합의내용 중 '불교병원 개원과 관련해 학내 제주체들의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는 만큼 앞으로 개인 전까지 구성원들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농구부 "2~3년 뒤를 기대하라"

92년 임의해체 후 선수수급 난조 ... 내년 12명 선발

프로스포츠가 활발해지면서 고졸 선수들이 곧바로 프로무대로 진출하는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 때문에 대학팀은 뛰어난 선수를 영입하기 어렵고, 경기의 질이 떨어지면서 전체의 질도 떨어졌다. 이에 본사 대학부는 태대학 감독 등 스포츠 관계자를 통해 본교 체육부의 전력분석과 앞으로의 전망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로 7~8명의 선수를 선발하면서 부활의 움직임을 시작했다. 하지만 몇 년간 '해체하는 팀'이라는 인식이 고교팀에 팽배해 선수수급 문제는 최근까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97년 본교에 입학한 김승현 선수는 "처음엔 인지도가 낮은 팀이라 망설였지만 우수한 팀에서 후보로 남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최근 몇 년 동안 선수수급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서, 농구부는 주전 다섯 명을 뒷받침해줄 '식스맨'이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평균신장이 작고(185cm) 체력이 약해 압박수비를 펼치지 못하는 것이 단점이다. 또한 센터진이 약한 편이다. 김승현 선수 이후 경기를 조율할 수 있는 포인트가드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대신 심재혁(체교4·184cm) 문종호(체교4·186cm) 추철민(체교2·183cm) 등의 외곽포는 위협적이다. 건국대 김승환 감독은 "동국대는 외곽슛이 정확해 잠시도 방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농구부는 이와 함께 김현중(체교2·178cm) 등 스피드가 빠

른 선수들을 위주로 한 속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주목할 만한 선수는 185cm의 키로 덩크슛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만큼 탄력이 좋은 김혁(체교2) 선수와, 다방면에 걸쳐 뛰어난 기량을 지닌 박범재(체교1·189cm) 선수 등이다. 농구부는 올해 대대적으로 12명 정도의 선수를 선발, 어느때보다 우수한 선수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량이 뛰어난 고졸 선수가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대학농구도 평준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희망적이다. 최성오 감독은 "올해 목표는 6강이고 내년엔 입단하는 신입생의 기량이 다듬어지는 2004년부터 우승권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번 꺾인 날개를 다시 펴고 다시 비상할 꿈꾸는 농구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전국대학농구연맹전' 2차리그대회에서 그들의 힘찬 날개짓을 기대한다. 김도영 기자 girus@dongguk.edu

감사 3명 선임·병원장 내정 제185회 이사회에서

지난달 29일 열린 동국학원 제185회 정기이사회에서 3명의 감사가 선임되고 동국대 의과대 및 한의대 부속 불교병원장이 내정됐다. 새로 선임된 감사는 △이명선(법사주지) △박도근(상65졸)이다. 이번 선임은 3명의 감사가 임기 만료되면서 이뤄진 것이다. 또한 불교병원 초대 원장에 하근익 전 삼성서울병원장이 내정됐으며, 오는 9월 1일자로 정식 발령할 예정이다. 일본인도학불교학회 세미나 월드컵기념 국내최초 개최



신명나네 ... 단과대 풍물패 연합(회장=장학수·선2, 이하 단공연)은 지난달 31일 민해광장에서 2002학년도 정기공연을 열었다. 'Go·Back·Jump' 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공연은 풍물패로 인한 소음문제를 학생들과 함께 해결해 보고자 고민하는 자리였다.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임권택 겸임교수, 칸 영화제 감독상 수상

본교 동문 대종상 작품상·여우주연상 등 5개부문 석권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제39회 대종상 시상식에서는 영화 '집으로...'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튜브픽처스의 황우현(영화영상95졸) 동문과 황재우(영화영상95졸) 동문이 기희상을 함께 수상했다. 또한 연극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전지현(본명=왕지현)양은 영화 '열기적인 그녀'로 여우주연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 더불어 이규석(영화학 석사) 동문이 영화 '2009 로스트 메모리즈'로 음향기술상, 장성호(영상정보통신대학원 박사과정) 동문이 시각효과상을 수상했다.

김형주 한총련 의장 연행

합법화 대책위 등 규탄성명 발표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김형주·전남대 총학생회장, 이하 한총련) 의장이 지난달 29일 충북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됐다. 이 날 한총련 의장은 충북 서원대에서 간담회를 끝내고 나오는 중 10기 한총련 대의원회 소집 등의 이유로 연행됐으며, 현재 광주 구치소에 수감돼 조사를 받고있다. 이와 관련해 오종렬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 상임대표는 "이번 연행은 6.15 민족통일대축전에 한총련·범민련의 참여를 막으려는 정부당국의 술책"이라고 말했다. 알 리

본사사령

- ◇ 임 수습기자
- ▲ 김영락 (불교대1)
- ▲ 최우석 (불교대1)
- ▲ 이지혜 (생자대1)
- ▲ 김효정 (인문과학대1)
- ▲ 지은숙 (인문과학대1)
- ▲ 김정은 (자연과학대1)
- ▲ 김기경 (법정대1)
- ▲ 신현연 (법정대1)
- ▲ 김인애 (관광대1)

- 이상 6월 3일자

보리소

비우면 차는 것

어느 사업가가 심각한 경영상의 곤경에 처했다. 온갖 공리를 쏟아도 타개책을 찾지 못해 고민하던 그는 명망 있는 스님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그가 찾아온 뜻을 알고 나서 스님은 그에게 "차나 한잔 드십시오"라고 권하면서 차잔에 차를 따랐다. 그런데 그 스님은 차잔에 차가 넘쳐 흐르는데도 계속 따르고 있었다. 스님이 조언을 공리하고 있는 탓이라고 생각한 그 사업가는 "스님, 차가 넘칩니다"하고 그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스님은 말했다. "그렇습니다. 이 차잔이 당신의 머리속이요. 당신의 머리속은 지금 온갖 생각으로 꽉 차 있소. 내가 아무리 기막힌 조언을 해 주어도 이 차잔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머리속에는 들어갈 틈이 없소"

모든 고정 관념을 타파하는 데서 공(空)의 경지가 저절로 실현된다고 가르치는 중관 불교의 유명한 논사인 데바는, 이교도의 논사를 논쟁에서 크게 물리친 적이 있었다. 스승의 패배에 격분하여 데바를 암살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그 논사의 제자는, 숲속을 산책하는 데바를 칼로 찌르고선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지식으로 나의 스승을 이겼지만, 나는 지금 칼로 당신을 이겼소." 칼에 찔린 데바는 자신이 이런 악행의 씨앗을 뿌린 것을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옷과 소지품으로 위장하여 이 숲을 빠져 나가라고 그 자객에게 권했다. 자객은 데바의 진정함 연민과 동정에 깊이 감동하면서 그 자리에서 도망갔다. 죽음을 임박하여 제자들에게 발견된 데바는 법인을 묻는 그들에게, "칼로 찌른 자도 없고 칼에 찔린 자도 없다."라고 말할 뿐이었다. 앞의 이야기에서는 집착하고 있는 관념을 비우지 않는 한, 새로운 지식도 제 가치를 발휘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불교에서 공을 가르치는 취지도 이와 같은 것이다. 뒤의 이야기가 실증하는 것은, 고정 관념을 비운 공의 자리에는 타인의 입장을 포용하여 이해하는 자비 실천의 인격이 저절로 세워진다는 사실이다. 지성인일수록 불되고 있기 쉬운 편향적 사고와 관념을 말끔히 비워 보는 것은 방학을 채우기에 적절한 소일거리가 될 만하다. 정승석 불교대학 불교학과

지면안내

6~9면 **고교생 문학 공쿠르 수상작 및 심사평**

본사와 문예창작학과가 공동 주관한 제40회 전국고교생 문학 공쿠르가 지난달 25일 중강당에서 열렸다. 각 부문에 입상한 작품들과 심사평을 함께 실는다.

4면 **지방선거 맞은 진보정당**

12면 **영웅과 문화**

당신도 혹시 F?

자리 맡아주기, 핸드폰 울리기, 잡담, 음식을 반입을 일삼는 당신. 시험성적은 A일지 모르지만 도서관 이용 수준은 F를 면치 못합니다. 도서관 예절을 지키는 일은 기본입니다.

발전기금 060-700-0119

동대신문사

도서관 공간배치 상당부분 확정

신관 '자료실' - 구관 '열람실' 중심 ... 공간문제 해소 기대

오는 9월 완공 예정인 신축 중앙도서관(이하 신관)과 현 중앙도서관(이하 구관)의 공간배치가 상당부분 확정됐다. 신축도서관 운영위원회(위원장=조용길·북교학, 이하 운영위)는 신관을 자료실 중심으로, 구관은 공간문제 해소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기본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신관=지하3층 지상3층으로 설계됐으며 △지하3층=주차장 △지하2층~지상2층=자료실 및 열람실 △지상3층=열람실 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자료실의 확충은 이용자가 직접 책을 찾아볼

수 있는 개가식 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자료실은 인문·사회·자연과학 등 주제별로 분리하고, 도서관리를 위한 행정부서를 함께 두어 건물 안에서 모든 학술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원생 전용 공간을 마련해 열람석·연구실 등 공간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할 방침이다.

현재 운영위는 기본안을 바탕으로 열람실과 개가식 자료실의 비율 등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앙도서관장은 "공간배치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6월 안

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관=신축 도서관 개관과 함께 구관은 오는 10월 내부 수리를 포함한 재건축 공사를 약 6개월~1년 동안 진행하게 된다.

현재 확정된 공간배치 계획은 △1층=강의실 △2·3층=열람실 전용 △4층=교수 연구실이다. 두 개 층을 전용 열람실로 배치한 것은 부족한 열람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학생회(회장=주진완·국교4)는 구관내에 학생자치기구인 '도서관자치위원회' 사무실을 설치해 복지부문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학교측에 요구한 상태다.

도서관 공간 배치에 대한 각 주체들의 요구에 대해 중앙도서관 관장은 "구성원들의 요구를 참고하지만 특정 구성원에 치중해 공간배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신관이 개관되어도 도서관 등으로 2개월여 동안 대출입구 등에 불편을 겪게 될 전망이며, 구관 재건축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공간문제 해결을 느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학부
dmz@dongguk.edu

회전무대

냉방의 적

○...요즘 정보문화관 공용컴퓨터실에 설치된 에어컨은 꼬리(?)가 긴 학생들로 인해 과열상태라는데.

이유인즉 냉방 중인데도 출입문이 열려있어 희망온도 유지를 위해 에어컨을 계속 켜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실내에 에어컨을 작동할 때 '냉방중'이라는 문구를 입구에 붙이면 전력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에어컨을 켜는데도 문을 열고 다니는 이, 공공의 적."

어디로...

○...얼마 전 상록원 학생식당에 '수저 대어 가능하니 가져가지 말라'는 안내문이 붙어 눈길을 끌었다.

얼마보니 1학기 동안 수저의 1/3 이상 분실돼 이를 막기 위해 공고를 붙인 것이라고.

이는 일부 학생들이 학내 행사를 치르며 식당측의 허락 없이 수저를 가져갔기 때문이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그 많은 수저를 누가 다 가져갔을까?"

클메이트

○...해화문에 있는 신문 배부대가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해화문으로 올라오는 길에서 나뉘는 각종 전단지과 광고지를 신문 배부대에 버리고 지나가는 학생들이 많다고.

때문에 정작 제 위치에 놓여 있는 신문은 전단지에 가려져 신문배부대 전단지 함으로 착각할 정도이다.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신문지와 전단지의 유통하지 않은 동거이 야기(!)"

타는 목마름

○...요즘 동국관 3층에 있는 식수대가 재기불능 상태에 빠졌다

는데.

얼마보니 식수대의 수압이 약해 식수구에 입을 대지 않으면 사실상 물을 먹기 힘들 정도라고.

한달 째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가 되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학생들을 갈증으로 뒤흔들 절대무공의 식수대가 온다(!)"

직업탐구 강좌 총강

취업관심 반영된 높은 호응

내용 중복·실무교육 부족 등 문제점 보완해야

취업 관련 교과목으로 이번 학기 처음 개설된 '직업탐구' 강좌가 학생들의 높은 호응 속에 오는 14일 마무리된다.

각 기업의 채용담당자와 취업 관련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 직업탐구 강좌는 기존 취업특강과 달리 자유선택 과목으로 2학점이 인정되면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유현호(사회4)군은 "취업설명회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이미지메이킹·예절교육 등 체험이처럼 직업탐구 강좌는 학생들이 높은 참여 속에 진행됐지만 처음 실시된 만큼 몇 가지 부족한 점을 나타냈다.

우선 강연내용이 중복되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강사가 자격 조건·서류준비 등 취업에 관련된 기본사항들이 서로 비슷한 대기업의 채용담당자인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업종 특성을 살려 각 강연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강의내용이 공무원 시험·자격증 설명 등 일반 사무·행정직에 편중돼 있어 다양한 학

과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점의 하나다. 따라서 IT·문화산업 등 여러 분야의 강사를 초빙해 강의내용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또한 이한영(산공4)군은 "면접에서 고득점을 얻는 답변 요령 등 실무적인 교육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취업을 위한 준비자료, 각 기업의 동향 설명을 위주로 하는 기존의 취업설명회 형식 수업에서 탈피해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강좌로 거듭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처(처장=김용기·수학교육) 취업지원팀의 한 관계자는 "2학기 직업탐구 강좌는 취업준비를 시작하는 3학년 위주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강인원을 현재보다 100여명 정도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학기에 진행되는 '직업탐구' 강좌는 이번 학기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해 더욱 효율적인 수업이 될 것 기대한다.

김하나 기자
selllyone@dongguk.edu

생협, 독립법인 재추진 준비

이사회에서 대의원 수 확대 등 논의

생활협동조합(이사장=허천택·영어영문학, 이하 생협)이 독립법인을 위한 준비에 재착수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제38차 생협 이사회는 외부경영진단 결과를 보고 받고, 독립법인 준비를 위해 교수·직원 51명, 생협직원·학부생·대학원생 50명 등 대의원 수를 101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교수·직원 대의원에 포함되는 이사회

는 의견결론 없이 회의만 주재할 수 있도록 정해 교수와 다른 구성원들의 대의원 구성비를 균등하게 했다.

생협은 독립법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정관 개정을 통해 명시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또한 사무국 중심으로 TFT(Task Force Team)를 구성, 독립법인 추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조직개편 등 업무 추진 과제를 담당하도록 했다.



산사의 음식 ...

여학생실(실장=이혜은·지리교과)과 가정교육과가 전통사찰음식 조리강좌 수강생을 대상으로 지난 27일 조리실습실에서 사찰음식 경연대회를 열었다. 경연대회 이후 주최측은 △연꽃상 △버들상 △관기상 세 부문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조슬기 기자 cho55@dongguk.edu

해외탐방장학생 선발결과 발표

평균경쟁률 5.3 대1 ... 서울 12팀·경주 3팀

학생처(처장=김용기·수학교육) 학생복지실은 2002년 해외탐방 장학생 최종 선발결과를 발표했다.

약 5.3대1의 경쟁률을 나타낸 이번 해외탐방 장학생 선발 결과 최종 선발된 팀은 서울팀 12팀, 경주팀 3팀으로 총 15팀이다.

서울캠퍼스는 △미국 4팀 △유럽 5팀 △일본 2팀 △중국 1팀, 경주캠퍼스는 △미국 2팀 △유럽 1팀이 선발됐다. 이와 함께 선발된 팀의 불참 가능성을 고려해 예비합격 1팀을 추가 선정했다. 선발된 팀은 왕복항공권과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아 오는 7월 8일에서 8월 23일 사이 2주 동안 탐방을 떠나게 된다.

또한 학생복지실은 탐방 후 결과보고서 심사를 통해 대상 1팀, 우수상 1팀을 선정 각각 2학기 등록금 50%와 30%를 감면해 줄 예정이다.

**총대, 의장 보결선거 무산
비대위 체제로 운영할 방침**

지난달 27일 마감된 총대의원회(의장 권한태=정석중·수교4, 이하 총대) 의장 후보등록에 출마자가 없어 보결선거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이틀간 예정됐던 보결선거 일정은 모두 취소됐고, 총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디지털 아카이브 박물관 완성 박도근 객원교수 기증

디지털 아카이브 박물관이 최종 완성됐다.

이는 박도근 경영대학원 객원교수가 본교에 기증한 것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전자불전연구소 홈페이지(http://edit.dongguk.ac.kr)에 개설했으며, 몇 차례의 보완 끝에 마무리된 것이다.

이번에 최종 완성된 사이버 박물관은 국내 최초로 3차원 디지털 아카이브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본교가 소유한 59점의 문화재 중 58점이 전시돼 있으며 누구나 감상할 수 있다.

한편, 기증식은 내일(4일) 송석구(철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1시 30분 본관 교무위원회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문화연구소 주최 석학초청세미나 열려

한국문화연구소(소장=임기중·국어국문학)는 오는 11일 오후 2시 반 학술문화관 제3세미나실에서 석학초청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 현대사의 연구 방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 근대사' '한국 현대사'의 저자인 김용직 전 서울대 교수를 초청, 현대사 연구자가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2기 한국어학당 개강 집중 문화체험과정 접수

제2기 한국어학당 강좌가 오는 17일부터 8주간 진행된다.

개설되는 강의는 정규반 두 강좌와 집중반 한 강좌로 각 수업 정원은 12명 안팎이다. 수업료는 정규반과 집중반 각각 90만원과 25만원이며 접수는 개강 전날까지 가능하다.

한편 언어연구교육원(원장=조의연·영어영문학)은 오는 21일부터 여름 집중 한국어 및 문화체험 과정 접수를 진행한다. 이 강좌는 다음달 8일부터 약 4주간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실시한다.

도서관 철야개방 교문 폐쇄시간 연장

중앙도서관이 기말고사를 맞아 오늘(3일)부터 14일까지 4층 제3열람실을 철야개방한다.

단, 건물출입은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통제되며, 해화문 정문 후문의 폐쇄시간을 자정에서 오전 1시 30분으로 연장한다.

교육여건 온라인 설문조사 및 경품행사

- 취지 및 목적**
가. 본교 교육 제반 현황에 대한 상시조사를 통해 교육여건 개선에 반영하고자 함.
나. 향후 교육개혁의 방향 및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요구에 기초한 정책 결정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다. 본교 교육여건에 대한 재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학교 및 학업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며, 학생의 요구에 부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한.
- 설문조사 기간** : 2002. 5. 29(수) ~ 9.13(금)
- 설문 방향 및 내용**
가. 교육 여건 및 학사제도 전반에 대한 의식도 조사
나. 주요 설문 내용
(1) 교육여건 전반에 대하여
(2) 교육행정 영역에 대하여(전공선택제도, 복수전공제도, 전과제도, 행정서비스 등)
(3) 교육시설 영역에 대하여(강의환경, 도서관, 실험실습실, 컴퓨터실 등)
(4) 교육과정 영역에 대하여(수강신청, 교과목 개설, 학업지도, 학업평가 등)
(5) 학생복지 영역에 대하여(학생복지시설, 편의시설 등)
- 설문 방법**
가. 설문 방법 : 본교 홈페이지를 통한 학생의 전자 설문응답식 응답자 1인이 복수응답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진술하게 응답 요망
나. 인터넷상에서 주제별(5개영역)로 설문조사 실시 (교육여건 전반을 응답한 후 다른 주제로 이동하여 Click)
- 경품 행사**
가. 경품지급 대상자 : 교육여건설문 온라인 조사 기간중(2002. 5.29 ~ 9.13) 설문에 응답한 본교 재학생중 추첨을 통해 선발
나. 경품 내역
(1) MP3 : 3대 (2) 문화상품권 : 만원권 100매
(3) 학교 홍보시식 : 10개
다. 경품 당첨자 선발 방법 및 시상내역
(1) 으뜸상 - 경 품 : MP3 3대
- 선발방법 및 인원 : 설문 5개영역에 모두 응답한 재학생 중 추첨을 통해 3명 선발
(2) 버금상 - 경 품 : 문화상품권 만원권 2매
- 선발방법 및 인원 : 설문 5개영역에 모두 응답한 재학생 중 추첨을 통해 2명 선발
(3) 합가상 - 경 품 : 문화상품권 만원권 1매
- 선발방법 및 인원 : 설문 2개영역 이상에 응답한 재학생 중 추첨을 통해 5명 선발
(4) 행운상 - 경 품 : 학교 홍보시식
- 선발방법 및 인원 : 설문조사 기간중 아래의 순서로 설문문에 응답한 재학생 10명 선발
(1번째, 100번째, 500번째, 1,000번째, 1,500번째, 2,000번째, 2002번째, 3,000번째, 4,000번째, 5,000번째)
라. 당첨자 추첨 및 발표
(1) 당첨자 추첨
- 당첨일 : 2002. 9. 25(수) 예정
- 추첨위원 : 교무처장, 학사지원실장, 교육여건조사위원회 위원, 관련 직원 및 신문사 기자
(2) 당첨자 발표
- 발표일 : 2002. 10. 2(수) 이전 예정 - 발표장소 : 학교 홈페이지

교무처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접수

- 대상자** : 2002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사법계 및 비사법계 교직과정 이수자
- 자격**
(1) 학적이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춘 자
(2) 사법계: 교직과목 22학점, 전공 4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표 시과목 관련 기본이수영역별 상응과목을 이수한 자
(3) 비사법계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 교직과목 20학점, 전공과목 4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표시 과목 관련 기본이수영역별 상응과목을 이수한 자료, 교직
- 접수기간** : 2002. 6. 3(월) ~ 6. 7(금)
-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소정양식)
- 교부 및 접수처** 가. 사법대학생 : 소속 학교 사무실 나. 비사법계 학생 : 사법대학 교과과 *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사법대학 게시판에서 출력가능함.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니 수강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법대

강의에 대한 온라인 설문 조사 실시

- 취 지**
가. 강의에 대한 합리적 분석 및 평가결과 환류(feedback)를 통하여 강의의 질을 향상하고 궁극적으로 대학의 교육부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나. 교원업무평가 및 기관평가시 교육부문에 대한 객관적이며 신뢰성 있는 평가자료를 산출하기 위한
- 시행시기** : 2002. 6. 3(월) ~ 6.16(일) 중
- 대 상** : 2002학년도 1학기 개설 전체 강좌
- 응답자격** : 2002학년도 1학기 재학생 전체
- 응답요령**
가. 본교 홈페이지(www.dongguk.edu)에 접속 후 강의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항목 클릭
나. 본인의 학번 및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강좌를 선택하고 주어진 문항의 해당사항을 선택
다. 문항 건의사항란에는 자유롭게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바람
- 공지 사항**
가. 학생이 응답한 의견은 보다 나은 강의를 목적으로 하며, 그 응답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니 진지하고 성실해 응답하기 바랍니다. 나. 무성의한 답변(5점적중 일렬로 5회이상 답변)은 피하기 바람. 건의사항란에는 5점적 답변이 곤란한 사항 등을 서술하기 바랍니다. 다. 학생은 자신이 수강하는 전체 강좌에 대하여 설문응답을 하기 바랍니다. 라. 설문 응답률 제고를 위하여 수강 강좌의 1/2이상 설문에 응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하여는 인터넷 및 본교 전산망에서 성적공시 조회를 제한합니다.

교무처

2002년 여름 특강

- 어학특강**
가. 접수기간 : 5월 3일 ~ 6월 14일
나. 강의기간 : 6월 24일(월) ~ 8월 14(수), 8주 강의
다. 공개 강의 및 환불기간 : 6월 24일(월) ~ 6월 26일(수)
라. 접수 장소
▶ 구내서점 : 인박사 Puls, 터미네이터, 이익훈 TOEIC, 속성 한자 2000자, 넥서스 영어순해, WARD SMART 1 + II, 초급 중국어
▶ 중앙 도서관 앞 : 기초 종합반, R/C 집중반, 실전 종합반, 초급·중급 종합반
▶ 동국관 3층 로비 : 아카데미 TOEFL
 - 컴퓨터 특강**
가. 접수기간 : 2002년 6월 3일 ~ 2002년 6월 21일
나. 강의기간 : 2002년 6월 24일 ~ 2002년 8월 14일
다. 강의시간 : 월 ~ 목 (시간표 참조)
라. 공개강의 및 환불기간 : 6월24일 (월) ~ 6월25일 (화)
마. 접수장소 : 학생복지위원회 (다함관 3층-중도쪽 입구)
- | 강의명 | 시 간 | 내 용 | 수강료 | 강의실 |
|-------------|---------------|------------------------|------|------|
| TOFLE (대규모) | 9:00 - 10:20 | Hwp, Excel, Powerpoint | 심원원 | L101 |
| | 10:30 - 11:50 | | 심원원 | |
| | 9:00 - 10:30 | | 심원원 | L301 |
| | 10:30 - 12:20 | | 심원원 | |
| | 9:00 - 10:10 | | 심원원 | L204 |
| | 10:20 - 11:30 | | 심원원 | |
| | 9:00 - 10:10 | | 쿠민원 | L205 |
| | 10:20 - 11:30 | | 쿠민원 | |
| | 9:00 - 10:00 | | 심원만원 | L201 |
| | 10:10 - 11:10 | | 심원만원 | |
| | 11:20 - 12:20 | | 심원만원 | |
| | 9:00 - 11:00 | | 심원만원 | L202 |
| | 10:00 - 11:50 | | 시원원 | L501 |
| 기타 | 9:00 - 10:30 | | 심원원 | L407 |
| | 10:50 - 12:20 | | 심원원 | |
| | 10:00 - 11:20 | | 시원원 | M406 |
| | 10:00 - 11:20 | | 심원원 | M407 |
- 기타**
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학생복지위원회(2260-3681, 2276-1950)로 문의 바랍니다. 나. 공개강의 기간에는 수강생이 없어도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맘에 들지 않으면 공개강의 기간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학생복지위원회

사설 합의안 지키는데 노력 기해야

50일이 넘게 진행됐던 총학생회의 총장실 점거농성이 지난달 30일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점거농성 기간동안 학교와 총학생회의 잇따른 반박 성명서 발표와 유인물 배포, 교수회와 대학원 총학생회의 성명서 발표 등 구성원간의 분열이 좀처럼 잦아들 조짐이 보이지 않았던 터에 학교와 총학생회가 합의를 이루고 점거를 풀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는 학교가 총학생회의 주된 요구사항이었던 불교종합병원 문제, 등록금 책정 10대 원칙, 공간문제 등을 상당부분 받아들였고, 총학생회가 방학을 앞두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투쟁의 시기적 압박감이 농성을 계속하기에는 어려움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 합의안은 지난해 등

록금 5%인상과 함께 시작된 학원자주화투쟁이 대중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4월초 호지부지 마무리된 것에 비하면 상당부분 흡족할 만한 성과이다.

합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불교종합병원의 교비사용 문제를 교비회계와 병원회계의 예·결산을 분리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교비운용의 투명성을 높였고 개인시기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가져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한다.

특히 총학생회가 제시한 등록금 책정 10대 원칙 중 등록금 책정 협의회 구성 논의는 그동안 매년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매제될 수밖에 없었던 학생이 등록금 책정에 하나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등록금 인상분 반환에 관련해서는 교육환경 개선에 10억을 책정 받아 올해 안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는 2000년도에 5억7천만원을 책정 받은 것에 비하면 결코 적지 않은 액수이다.

하지만 교비회계와 병원회계는 사립학교법상 당연히 분리하게 되어있고 공개하는 원칙에 있어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아쉽다.

마찬가지로 학교와 총학생회가 불교종합병원의 개인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에 앞서 시기와 참여 구성원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지에 대한 여부를 밝혀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책정된 10억 역시 학교가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 스스로가 학교와 총학생회의 합의안이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형태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을 보이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총장직선제 논란

'참된' 직선제 위한 보완조치 필요

대학총장이 이만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또 있을까. 서울대 이기준 총장의 사외이사 겸직으로 시작된 총장에 대한 논란은 고려대 '한 대학 두 총장'을 거쳐, 총장직선제 폐지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주가 고려대 이사장인 동아일보의 최근 사실을 통해 "우리 현실에서 총장직선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대학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대는 장기발전계획안을 통해 총장 간선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도 국립대 발전계획안 등을 통해 직선제 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총장직선제 폐지론자들이 부작용으로 지적하는 것은 선거과정에서 후보가 난립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금권 관련 부조리, 학원·지연 등 연구주의 등의 과열양상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윤정일(교육학) 교수는 "선거 절차가 조성되는 학내파벌은 갈등과 불신을 남기고 결국

대학발전을 저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총장 직선제 폐지이론에 대해 교수단체 등은 침소봉대하며 반박하고 있다. 부산대 황한식(경제학) 교수는 "직선제가 부작용이 일정 정도 있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 논란은 일부에서 이를 너무 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87년 6월 민주화 운동의 성과물인 총장직선제는 역사가 짧은 만큼 정착되기 위한 과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직선제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 상임회장 건국대 주경복(불어불문학) 교수는 "선거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금품·향응제공 등을 일정한 수준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직선제의 참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선거과정에 교직원과 학생 등 구성원의 참여보장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있다. 이번주 총장선거를 실시



총장후보 난립으로 과열양상을 빚은 한국외대의 총장후보 정책비교판(왼쪽)과 김경배 총장 연임에 항의해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는 고려대 교수들의 모습(오른쪽).

하는 경북대에서는 교직원들이 '교수들만의 총장선출'을 반대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주경복 교수는 "선거관리에서 행정업무를 교직원이 맡는 등 기능적인 부분을 구성원과 분담할 수 있고, 투표에도 각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친 대표들이 참여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총장선거에 후보가 난립하는 것은 대학총장이 그만큼 권위와 명예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황한식 교수는 "후보난립은 궁극적으로 현 총장전권체제가 문제"라며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통해 교수협의회를 학칙기구화 하고, 이를 통해 총장의

기능을 분화하고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직원·학생·동문 대표를 포함한 대학발전협의회의 설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총장직선제는 대학의 민주화를 위해 충분히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는 제도다. 지금의 간선제가 교육부·사학재단의 방침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때문에 총장 직선을 준비하는 대학들은 직선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논단

강정구 사회과학대 사회학과 교수



6.15공동선언이라는 민족대장전을 일구어 낸지도 벌써 두 돌이다. 공동선언 이후의 남북관계를 짚어보면서 우리에게 부과된 역사적 책무에 대해 고뇌해 보겠다.

정상회담의 바탕이 되었던 베를린 선언에서 김 대통령은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와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이루고자" 획기적인 대북 약속을 내놓았다. 첫째, 경제부문에서 "도로, 항만, 철도, 전력,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근본적인 농업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정부당국간의 협력"을 약속했다. 둘째,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을 위해 "정부는 힘

등을 강요하고, 전쟁을 통해서라도 대량살상무기 반확산을 추진하고, 악의 축 전쟁위협을 가하고, 북한일미 MD추진을 획책하는 등 막가파식의 폭력 지향적 대북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연두교섭에서 내뿜은 악의 축 위협 때문에 전쟁의 불길기가 다가오다 6~700개의 민중시민단체의 전쟁반대운동에 전쟁의 불길은 잡혔다. 그러나 불씨는 아직 남아 있어 2003년 한반도 전쟁위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이에 못지 않게 친미사대주의 냉전세력은 황야의 무법자 같은 부시정부에 부화뇌동하면서 '민족약탈 가로막기'에 여념이

'6.15정신' 되살려 화해와 공존을

이 닿는 대로 북한을 도와"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셋째, 대신 북한에 이산가족 해결과 정상회담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6.15공동선언은 이에 대한 남북간 합의를 일구었고, 더 나아가 통일방안 등에게까지 근접하는 민족사적 쾌거를 이룩했다. 이 결과 90%이상의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이를 계기로 최소한 남북정권사이에는 상당한 화해와 신뢰가 구축되었다. 9.11테러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긴장이 단 금강산 관광을 지속되고 있다. 서해공단이나 경의선 및 경원선 연결 등도 기본적인 합의는 이루어졌다. 남북간에 국방관계가 회담까지 열렸고 이산가족 상봉도 수차례 가졌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화해나 협력 구도가 성립되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베를린 선언에서 약속한 사회간접자본과 농업구조개혁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평화와 통일부문에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돌이겨야 한다. 곧, 미국의 부시정권과 남한 주류언론과 정치계에 포진해 있는 친미사대주의 냉전수구세력의 '민족약탈 가로막기'다.

부시정부는 클린턴 정부가 10.12북미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한반도냉전정착과 완전한 관계개선 약속을 헌신적처럼 깬 것이다. 북한에 대해 특별 핵사찰, 재래식 무기 감축, 병력 후방배치, 한반도평화선언 불가

했다. 이로써 '6.15공동선언 죽이기'와 '남북 대결론'이 확산되어 남북공조보다는 한미공조 우선론, 철저한 검증론, MD지지원, 북한퍼주기론, 김정일 사파론, 북한 먼저 재래식 무기 감축론 등 또 하나의 막가파식 적대논리가 판을 치고 민족의 논리와 6.15정신은 실종되고 있다.

오늘날의 통일정세는 다가오는 한반도전쟁위험에 파멸적 종착점을 수 없는 상황이다. 내년이면 경수로 보상, 특별핵사찰, 미사일 개발 등에 대한 미국의 일방주의와 폭력주의에 의해 전쟁위기가 최고도로 고조될 것이다. 94년의 한 시간 차이로 전쟁을 피할 수 있었던 아슬아슬한 영변핵위기를 능가할 정도로 위험스런 국면이 조성될 것이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동원 특사가 부러부러 방북해 6.15관계를 복원시켰으나 느닷없이 금강산 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또 다시 암초에 걸렸다.

당면 급선무는 통일보다 한반도 전쟁막기다. 새 가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 첫째는 94년 영변핵위기를 역사적 교훈을 삼아 전쟁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고, 둘째는 악의 축 전쟁위기에 서 시민민중사회의 반전운동이 이룩한 성과의 계승이다. 셋째는 남북이 6.15정신을 되살려 남북공조로 대처하는 것이다. 이 길만이 우리의 생명권을 보전하는 길이다. 기막힌 현실이지만 엄연한 현실임을 인정하고 우리 모두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총장선출 ...

1. 총장선출방식

△직선제 = 교수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총장을 선출하는 방식. 오랫동안 대학 민주화과정의 동역어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교수들 간에 파벌주의를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대부분의 국립대학교와 일부 사립대학교가 채택하고 있다.

사립대학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

△임명제 = 재단이나 정부가 총장을 일반적으로 임명하는 방식.

2. 고려대 '한 대학 두 총장' 사태

고려대의 총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달 3일 재단이사회가 그동안의 절차를 무시하고 김경배 총장의 연임을 결정함으로써 촉발됐다.

교수협은 이에 맞서 자체 투표를 실시해 이필상 경영대 교수를 새 총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이례적으로 지난달 25일 김경배 총장에 대한 해임권고안을 가결했다.

△간선제 = 총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받은 이들 가운데 재단이나 정부에서 '낙점'하는 방식.

재단이나 정부가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교수협의회의 선거내용을 무시할 경우 변질될 위험이 있다.



임희정 texaswind@hanmail.net

여름학기 사회봉사 단원모집

- 신청 자격: 재학생
- 신청 기간: 2002. 6. 3(월) ~ 6. 7(금)
- 봉사활동 기간: 2002. 6. 20(목) ~ 2002. 8. 31(토)
- 봉사활동 방법: 봉사대상 기관 및 활동내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활동 안내 자료 : 인터넷 게시 및 각 단과대학 교학과, 동국참사람 봉사단에 비치)
- 봉사활동 대상기관: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외 110여개 기관 (활동내용: 6500여개 프로그램)
- 봉사활동 신청 장소: 동국참사람봉사단(본관 3층)
- 사회봉사 학점 신청 및 성적처리 방법
 - 학 점 신청: 사회봉사활동 신청서를 참사람봉사단에 반드시 제출해야 함. 나. 평가 방법: Pass 또는 Fail
 - 성적 평가
 - 학점 인정: 여름학기 기간 중 33시간 이상 활동 시 (교과목: 사회봉사, 이수구분: 자유선택, 1학점 Pass)인정
 - 학점인정시기: ▶ 여름학기·가을학기 활동자 (2학기 기말고사 성적에 반영) ▶ 겨울학기·봄학기 활동자 (1학기 기말고사 성적에 반영)
 - ※ 참고사항: 2002년 8월 졸업대상자는 학점 인정이 불가하므로 참고바람
 - (3) 전체 졸업이수 학점에는 포함하나 평균성적 산출(에는 포함하지 않음)
 - (4) Fail의 경우 학적부 및 학업성적표에 기록하지 않음.
 - ※ 사회봉사 학점은 수강신청 제한 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이수 학점으로는 재학기간 중 2학점까지 인정함.
- 동국참사람봉사단 예비교육(이론 및 현장체험학습)
 - 일 시: 2002. 6. 18(화) 08:20~17:00
 - 장 소: ▶ 특 강 - 본교 중앙당 08:20까지 시간 엄수 ▶ 현장체험학습 - 한사랑 마을·향림원(경기도 광주 소재) (※ 현장체험학습은 예비교육 대상자 전원 학교 버스로 이동)
 - 참고사항: 동국참사람봉사단 예비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은 봉사활동 불가 (단, 예비교육은 봉사활동 실시 전에 받아야 하며, 재학기간 중 1회 이상만 이수하면 됨.)
- 최근 상담수의 기업에서는 사회봉사활동의 경험을 중요시하여 채용 과정에서 봉사활동 여부를 반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캠) 동국참사람봉사단

2학기 휴학, 복학, 재입학 시행

- 일반 휴학
 - 접수일자: 6. 17(월)~19(수), 8. 26(월)~28(수)
 - 휴학 대상자: 가정형편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할 수 없는 학생 또는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
 - 신청서류: 보호자가 연서한 일반휴학원, 휴학연장원(휴학연장지) 1부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유의사항: 일반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단,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1년 추가 연장가능), 일반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정됨
- 복학
 - 접수일자: 6. 10(월)~12(수), 8. 19(월)~21(수)
 - 복학 대상자: 일반휴학자로서 휴학기간 만료자 및 한학기만 휴학하고 복학할 경우 교과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자, 병사휴학한 자로서 전역자 및 2002년 9월말이전 전역예정자.
 - 2002학년도 2학기 복학대상자중 2학년 복학예정자는 전공결정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소속대학 교학과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일반복학자: 복학원서 1부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군복학자: 복학원서 1부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전역 증서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전역일자 기재된 것) 1부
 - 전역예정자는 제대 후 반드시 전역증서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재입학
 - 접수일자: 6. 10(월)~12(수), 8. 19(월)~21(수)
 - 재입학 대상자: 퇴학 및 학칙 제53조의 사유로 제정된 자로서 2002년 1학기 재입학 희망자. 단, 학칙 제53조 12호의 학사징계 제정자는 제정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후 가능
 - 재입학 허가자 등록기간: 6. 17(월)~19(수), 8. 26(월)~28(수)
 - ※ 소정기간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이 취소되며, 차순위자가 재입학 가능하게 됨을 유의 바랍니다.
 - 구비서류: 1) 재입학원서 1부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재적증명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교무처

2002학년도 2차 전공결정 시행

- 신청대상
 - 2002학년도 2학년 1학기 재학생 및 2학년 2학기 복학생으로서 전공 미결정자
 - 1차 전공 배정자 중 전공변경 희망자
 - 일정
 - 전공 배정 신청기간
 - 2학년 2학기 1차 복학생: 2002. 6. 10(월) ~ 6. 12(수) (1차 복학시기)
 - 2학년 2학기 2차 복학생: 2002. 8. 19(월) ~ 8. 21(수) (2차 복학시기)
 - 전공배정 최종 결정 및 확정공고
 - 2학년 재학생 및 2학년 2학기 1차 복학생: 2002. 8. 9(금)까지
 - ※ 대학별 공고 및 홈페이지 게시
 - 2학년 2학기 2차 복학생: 2002. 8. 30(금)까지
 - 배정기준
 - 1학년 1·2학기, 2학년 1학기 성적과 계절학기 성적을 통산한 누계 평점평균을 비교 적용한다.
 - 단, 다음의 경우는 3개학기 이수자와 성적 경제시 3개학기 이수자의 하위에 둔다.
 - 2학기 이수자(조기복학생)
 - 3학기 이수자중 1학년 수료학점에 미달하는 자
 - ※ 1학년 수료학점(2001학번 기준): 35학점
 - 단, 불교대, 경영대, 사회과학대 경제학전공은 30학점
 - 복학생의 전공결정
 - 기본원칙
 - 복학생은 입학당시 소속된 모집단위내에 개설된 전공(학과)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단, 모집단위가 세부화되어 소속 변경된 경우 변경한 학부 소속 전공만 지원 가능하다.
 - 배정기준
 - (3. 배정기준 참조)
 - 단, 2차 복학생의 성적(2차 전공결정시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재학생+1차 복학생)의 cut-line 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존전원(150%)을 초과하더라도 희망 전공에 배정한다.
 - 편입학생의 전공결정
 - 2001년 신입학자의 배정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학기수 부족에 대한 차순위 배정은 하지 않고 본교에서 취득한 성적만을 일반학생과 비교 적용한다.
 - 통정자 처리기준
 - 제1기준: 개인별 누계 평점평균을 소속된 셋째지리까지 비교한다.
 - 제2기준: 평점평균이 동일할 자중에서 총 취득학점이 많은 자가 우선한다.
 - 제1, 2기준에도 통정자일 경우 동 순위로 처리한다.
 - 전공결정 신청방법
 - 2학년 재학생: 인터넷 신청
 - ▶ 학교 홈페이지의 《전공결정 인터넷 신청 안내》
- 전공결정 버튼 Click

↓

입력화면에서 학번 및 비밀번호 입력

↓

로그인화면에서 학번 및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하기 버튼

↓

전공인력 Click

↓

신청가능한 전공이 Display됨

↓

희망전공 입력

↓

화면에 나타난 전공들이 본인의 대학 내 전공을 확인후 희망전공 입력

↓

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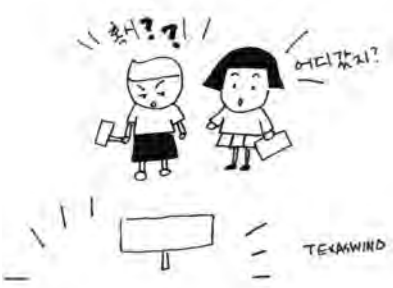
↓

희망전공 입력이 바르게 되었는지 확인 후 저장
- 2학년 2학기 복학생
 - 소속 대학 교학과에서 전공 신청원을 교부받아 자신이 소속된 모집단위내의 개설전공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4지망까지 작성하여 신청한다.(동일전공 중복지원 불가) 단, 소속 모집단위내 지원가능한 전공이 4개 미만일 경우에는 4지망 미만이 될 수 있다.
 - 작성이 완료된 신청원은 학업지도교수의 확인란에 싸인을 받아 소속대학 교학과에 접수한다.
 - 각대학 교학과에서는 개인별 신청원에 잘못된 기재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란에 날인한다.
 - 일단 접수된 신청원은 취소 및 정정이 불가하며 본인이 접수 전 최종 확인을 하여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서울캠 교무처

동약로

누구시길래...



"K교수 사건 기억하시죠?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지난달 29일부터 이틀 간 팔정도에는 어느새 학생들의 의식 속에서 잊혀진, 하지만 아직도 종지부를 찍지 못한 'K교수 사건'을 환기시키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름 다른 아닌 총여학생회(회장=허고은·중문3, 이하 총여)와 사회학과 학생회(회장=이인재·사회3)가 사건 관련 자료, 피해자의 글 등을 붙인 입간판을 전시해 놓고 진행한 공동서명운동.

이 날 모여진 학생들의 서명은 몇 달 후 시작될 민사재판에서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한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다.

"K교수가 아직도 학교에 다녀요?"라고 되묻는가 하면, "이런 일에 관심 없어요"라며 손을 내젓기까지.

서명운동을 시작하기 전 날, 총여와 사회학과 학생회는 자보와 자료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입간판을 만들었고, 이를 미리 팔정도에 전시해 놓았다.

하지만 다음 날, 자보와 자료는 운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별거벗은 입간판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때문에 총여와 사회학과 학생회는 자보와 자료들을 다시 만들어야 했고, 27일부터 예정됐던 서명운동은 하루 늦게 시작됐다.

결국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그 '누군가'가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도 알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총여와 사회학과 학생회가 '무관심'보다 더 큰 적을 만났다는 사실이다.

지난 대동제 기간 동안 총여가 백지 대자보를 통해 발표한 것처럼 같은 여성이라 할지라도 성폭력의 개념에 대한 시각은 판이하게 달라진다. 즉, 성폭력이라고 정의내리는 판단기준이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무심코 행한 말과 행동이 피해자에게 또다른 상처를 안겨주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닐런지 생각해 볼 일이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지방선거, 진보정당의 가능성은?

악재 넘어 정당명부제 통한 의회진출 기대

오는 6.13 지방선거에 진보 정당들을 비롯한 새 정치세력의 참여가 붓물을 이루고 있다. 진보정당들은 그동안 독재정권의 탄압, 지역주의에 기반한 투표형태 등으로 번번이 실패해 왔지만, 이제는 민주화와 시민운동의 성장 등으로 인해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 무르익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제껏 진보정당의 성장에 장애물이 되어 왔던 원인들과 이러한 요인들이 지금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진보정당의 발전 가능성을 점쳐본다. 편집자

언론사 관심 밖의 진보정당



언론의 편파보도에 항의하는 민노당 당원.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방송법 제6조 5항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에서 한낱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이제껏 언론은 기성 정당과 관련한 사건만 중요하게 다루고 진보정당은 철저히 외면해 진보정당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언론의 이러한 태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변함없다.

지난달 13일 한국방송이 주최한 서울시장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후보만이 모습을 드러냈을 뿐 다른 진보정당 후보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어 21일 열린 한국기자협회 인천·경기협회 주최 토론회에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후보만 초청돼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 김준기 경기지사 후보가 방송사를 찾아가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한 일부 신문사들도 진보정당의 성명을 현 정권에 대한 비판 용도로 악용하는 경우에만 보도함으로써 '진보정당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진보정당들은 텔레비전 토론회에 진보정당 후보도 참석할 수 있도록 요구하며 방송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한 진보정당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계속되는 비판적 지지 논쟁

"되어야 할 사람'보다는 '될 사람'을 찍겠다."

당선가능성이 낮은 진보정당 후보를 지지해 자신의 표를 사표로 만드느니 당선가능성이 높은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논리. 전형적인 '비판적 지지론'이다.

그동안 진보정당이 각종 선거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는 데는 비판적 지지론의 영향이 매우 컸다. 올해 역시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둘러싸고 비판적 지지 논쟁이 벌어졌다.

진보진영 일부에서 대선에 진보정당 후보를 출마시키는 대신 상대적으로 개혁성을 갖춘 노무현 후보를 전략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현재 민노당 내의 노무현 비판적 지지 논쟁은 대체로 "비판적 지지는 없다"는 쪽으로 정리된 상태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또 다른 비판적 지지 논쟁이 한창이다. 민주당 김민석 후보 지지자들은 민노당 이문욱 후보를 밀면 김민석 후보가 낙선하고 노무현 후보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김민석 후보 지지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러나 민노당 이문욱 후보 지지자들은 비판적 지지론을 따르다 진보정당 성장을 저해한 과거 사례를 되풀이하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다. 진보진영의 독자적 정치세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비판적 지지가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민노당, 사회당 등이 존재하는 지금 비판적 지지론은 진보정당의 존립 자체를 무시한 논리라는 것이다.

이에 진보정당은 그동안 현행 선거법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인물이 아닌 정당에 투표해 자신들의 지지표가 사표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의 10%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도록 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들은 2004년 총선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의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이 문제를 더욱 강력하게 제기할 계획이다.

진보정당 통합은 가능한가



지난해 12월 진행된 사회당, 민노당의 통합논의 모습

"진보진영의 역사는 곧 분열의 역사다." 성공회대 조현연 교수의 말이다. 87년 6월 항쟁 이후 진보진영은 선거 때마다 공동대응을 하지않고 분열된 모습을 보여 영향력 있는 정치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이같은 '각개약진'의 한계를 깨닫고 진보진영은 양대선거가 있는 올해 민노당을 중심으로 진보신당 창당을 통한 진보세력 결집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진보신당 창당의 핵심 작업이었던 민노당과 사회당의 통합 논의가 양당의 노선차이로 인해 무산됐으며 이번 지방선거도 단일 후보를 내지 못한 상태에서 치르게 됐다.

"양 당의 이념에 엄연히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무작정 통합하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크다"는 사회당 기관지편집위원회 강인성 부위원장의 말처럼 사회당은 민노당에 비해 통합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체진원 정책국장은 "항후 진보정당 후보 단일화를 계속 논의할 것이며, 대선 때는 단일 진보정당의 후보가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다른 전망을 내놓았다. 진보세력들이 대선에서 진보정당이라는 단일한 브랜드를 내걸고 출마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진보정당을 말한다

6.13 지방선거에서 약진이 예상되는 진보정당. 본교 서울캠 민주노동당, 사회당 학생위원회와 녹색평화당 대표를 통해 각 정당이 지향하는 점과 공약에 대해 들어보자.



노동자를 위한 정당

민주노동당학생그룹 '다함께' 본교 유병규(북한학과 석사과정) 대표는 민주노동당(대표=권영길, 이하 민노당)을 한마디로 '노동자를 위한 정당'으로 정의한다. 특정 계층만의 민주주의가 아닌 모든 사람들의 민주주의와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활동 하는 정당이 민노당이라는 것이다. 또한 유 군은 "민노당은 이를 위해 일반국민에게 예산결정기회를 주는 참여예산제나 의료, 교육제도의 공용화 등과 같은 공약을 내걸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밖에도 민노당은 부패한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와 지역경제고용위원회 설립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반자본주의자'들의 정당

지난달 12일 본교 학생위원회를 발족한 사회당(대표=원용수). 본교 신유철(국제통상4) 위원장이 생각하는 사회당은 어떤 정당일까. 그는 사회당을 "사회주의자들이 모인 정당"이라며 "여기서 사회주의는 북한, 구소련의 관료화된 국가사회주의가 아니라 모든 반자본주의의 운동을 일컫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회당의 공약도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유 군은 원용수 서울시장 후보의 '전쟁없는 서울' 공약을 예로 들며 "자본주의 속에서 '돈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는 국민들의 모습을 전광으로 비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당은 이외에도 24시간 공영 탁아시설 확충, 대중교통 무료화 등 공약을 통해 지방의회 진출을 노리고 있다.



초록색 정당

지난달 8일 창당해 아직 생소한 녹색평화당(대표=임삼진). 당 이름에서도 쉽게 알 수 있듯 녹색평화당의 정책은 환경과 관련돼 있다. 오는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임삼진 대표는 "환경 부시장을 새롭게 만들어 환경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다. 녹색평화당은 새만금사업 즉각 중단, 유기농과 지방자치단체의 연결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환경을 생각하는 한국'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yearn@dongguk.edu

1인2표제를 말한다

정당 뽑는 새로운 선거제도

올해 처음으로 투표권을 갖게 된 유권자 양. 투표권을 행사하려는 유 양은 선배를 찾아가 투표 절차에 대해 물었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자 명단이 적힌 투표용지 4장을 받아서 마음에 드는 후보에게 투표하면 돼. 간단하지?" 한 선배가 투표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지방선거는 어느 때의 지방선거와는 차이가 있다.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출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19일 헌법재판소는 지역구득표율에 따라 전국구 의원을 선출하는 현행 비례대표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지역구 후보에 대한 투표결과를 정당에 대한 지지로 여기는 것은 직접선거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는 지난 2월 28일 이번 지방선거부터 광역의원의 10%를 정당명부제식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것을 확정했다. 서울에 사는 유권자 양의 경우 시장·구청장·시의원·구의원 후보 외에 지지하는 정당에 표를 던져 서울에 배정된 10명의 비례대표 광역의원을 선출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당명부제식 비례대표제는 진보정당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념이나 정당을 지지할 수 있어 진보정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각 진보정당들은 1인2표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동당 이문욱 서울시장 후보 선거운동본부위원회 조동진 부대변인은 "지난 1월 설문조사에서 약 10%가량이 정당명부제가 시행되면 진보정당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번 선거는 진보정당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했다.

사회부 society@dongguk.edu

국어국문학 '본체중용' 자세 필요

대중문화의 타자성 인정하고 본격문학의 주체성 잃지 말아야

국어국문학 분야의 가장 크고 오래된 학술단체인 국어국문학회가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아 '통합과 확산'이라는 주제로 대진 한남대학교에서 제45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세부 발표는 국어학과 국문학,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국어국문학학과 인접학문, 국문학학과 문자문학, 국어국문학학과 대중문화 등 여섯 개 주제로 나뉘어졌는데,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맺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자들에게서 별개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분야간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통·학문(trans-science)'의 방법론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주최측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

기획주제 발표에서 서울대 고영근 교수(국어학)는 "컴퓨터란 가상공간을 통해 매체의 통합이 이루어진 것처럼 학문간의 통합도 이루어질 것"을 예견했고, 고려대 김인환 교수(현대문학)는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연속성 내지 통합의 과제를 전통의 계승에서 찾으려는 기존의 방법론에서 벗어나 두 체계 사이의 차이성 구축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논지를 전개했다.

또 성균관대 임형택(한문학) 교수는 "근대학문의 체계 속에서 분절화·기능화된 인문학은 스스로 인문정신을 팽개치고 '일치기 과학'으로 위장"했다고 반성하면서 인문학의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문학과 문학의 재결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전 포항공대 박이문 교수(철학)는 학문의 정체성, 경계선 및 주체성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한국문학의 주체성은 전통적 학문방식의 답습이나 신도불이식 민족주의의 편견과 특정한 이념의 해방 및 극복"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통합과 확산'의 주제는 학문적 관심이 갈수록 미분화·전문화되어 가는 최근의 학계 동향을 자성하고 학계간의 경계를 해체하여 보다 큰 학문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국어학과 국문학'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등의 주제는 서로 관심 영역을 달리 하지만 순수 학문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 연구자들 사이에 특별한 대립과 불화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동안 '대중문화'에 배타적인 태도를 보였던 학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필자가 발표한 '국어국문학학과 대중문화의 통합과 확산'이란 주제는 많은 논란과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쟁점을 담고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청된다.

지금까지 문학과 대중문화의 관계는 '주체'와 '타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는 것이었다. 대중문화가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비난과 배척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대중문화를 '타자'로 폄하하는 프랑크푸르트 학파

의 비판이론이 대세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대중문화의 '타자성'을 경계하듯 인정하면서 그것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대중문화는 비난과 거부 대상이 아니라 이해와 수용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대중문화와 대중매체의 장르적 특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야말로 본격문학의 쇠퇴와 종말이 운위되는 후기 산업사회에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대안일 수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문학과 대중문화의 교섭 가능성 문제가 아니라, 상이한 두 장르의 접촉 과정에서 대중문화의 '타자성'을 인정하면서도 본격문학이 '주체'로서의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한 세기 전, 서구 물질문명의 수용과 관련하여 고민했던 선조들의 사고 방식을 빌어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본체중용(本體家用)', 즉 본격문학의 정신 속에서 대중문화의 기법을 활용하는 도가 요청된다.

오늘날 문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와의 소통에 보다 능동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지만, 문학이 중심의 자리를 양보하고 주변으로 밀려나면 문학은 물론이거니와 대중문화도 함께 위축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장영우

예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환경과 우리의 삶

60, 70년대의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기에, 공장굴뚝에서 연기가 나면 날 수록 삼았을 발정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생각되었다.

이를 매연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반을 이루면서 사람들 의식이 깨고, 삶의 기본조건에 주변환경도 포함해서 생각할 줄 알게 되면서부터이다.

환경문제에는 복잡다단한 문제가 연계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매질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화석에너지 문제, 대체에너지개발문제, 환경오염문제, 생태계문제, 사람건강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열거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 및 생태문제 배후의 문제까지 소급해 올라가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 및 자연을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로 보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인간은 스스로 안에 완결된 본질을 지니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 또한 자연의 그 어떠한 존재보다도 유일한 본질을 부여받은 존재도 아니다.

인간은 자연 안에서 다른 존재들과 무한히 얽혀있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본질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는 존재이다.

그 관계는 단지 부모형제와의 관계뿐 아니라 그 외의 사람들, 그리고 주변의 생물, 무생물에까지 이른다. 아니, 우리의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천체들에게까지 이른다. 담장, 해와 달이 우리의 삶에 영향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할 때, 자연을 우리 인간에게 유용한 방식으로 무한히 변형할 권리가 인간에게는 처음부터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처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무지한 생각이다.

환경 및 생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정책을 세우는 일은 정부 및 관계기관에 미루더라도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습관하게 매일매일 실천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세제, 비닐봉투, 플라스틱제품, 스티로폼 등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버림으로써 물과 토양을 보존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한으로 버림으로써 물, 토양, 환경미화원을 배려하고(음식쓰레기에서 퍽퍽 떨어지는 썩은 물을 매일 수거해야 하는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보라), 자기 몸보다 몇 배나 큰 자가용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출퇴근함으로써 좁은 공간을 더 좁게 하고 매연을 푼물 날리는 일을 삼가야 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처한 환경 및 생태계 문제 때문만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러한 권리를 지닌 존재가 아니다.

이제 우리들이 공기 물 토양까지 고려할 때가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삶도 배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닌가.

참으로 풍요로운 삶이란 내 주위의 것을 최대한 배려하는 삶이지, 내 것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삶이 아니다.

특성화 연구 통해 세계문학으로 도약

불교학 관련 분야 연구에 집중 ... 불교문학 자료집 제작

Dongguk University
Institute of Korean Studies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본교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보이며 학교 발전에 이바지하는 부설 연구기관이 많다.

현재 연구기관 현황은 서울캠 불교문화 연구원, 사회과학연구원, 정보통신연구소, 전자물리 연구소 등 15개, 경주캠 사찰조사연구소, 한의학연구소, 관광산업연구소 등 11개로 각각의 사업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본사 학술부는 연구처 연구지원팀에서 실시한 평가를 바탕으로 3개 연구기관을 선정해 이 기관들의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산업기술연구원
2. 교육연구원
3. 한국문학연구소

편집자

세계문학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국문학 연구의 선두에 선 한국문학연구소(소장=임기중·국어국문학).

1976년 한국학연구소로 창립, 문학적 특성을 심화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1979년 확대 개편하며 국내 최초로 설립된 한국문학연구소는 한국학과 국문학에 많은 연구업적을 쌓으며 한국문학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1999년 임기중 연구소장이 취임한 뒤 '한글시대의 불교언어와 불교문학 연구'를 주요 연구과제로 선정된 한국문학연구소는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불교문학 자료집을 제작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진행해 왔다.

또한 지난 2000년도부터 한 학기에 한번씩 주제를 선정해 석학초청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오는 11일 학술문화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리게 되는 이번 세미나는 김용직 전 서울대 교수를 초청해 '한국 현대시의 연구 방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용직 교수는 '한국근대시사' '한국현대시사'의 저자로 현대문학 연구자들이 현대 시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고 다뤄야 하는 지에 대한 내용을 강연하게 된다.

이 외에도 한국문학연구소는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 가사문학 원전 및 주석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이 연구는 현존하는 가사 작품의 원전과 현대 활자본 자료들을 수집해 약 5천여 편에 이르는 작품들을 해석한 후, '가사문학 원전 주석 전집' 간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연구사업이다.

이러한 가사작품은 사대부·서민·규방 가사 등으로 구분돼 이를 통해 당시 한국인의 계층별 의식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조·민요·잡가 등 인접 문학장르와의 대비 연구에도 기

여한다는 점에서 한국문학연구소 가사작품 연구가 갖는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문학연구소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한국 가사문학의 주석과 정리방안 모색'에 관한 제22차 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중국을 기행하고 지은 연행록을 해석하는 '연행록 해제연구'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시행할 계획이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과학으로 즐기는 로봇 축구

사람처럼 움직이는 '휴로봇'까지 등장해

"한국팀 정확한 센터링에 의한 슈트! 네, 한국팀의 7번째 골입니다."

"심판 경기종료 휘슬을 불었습니다. 한국팀 후반 수비진이 무너진 독일팀을 7대0의 큰 점수차로 누르며 이번 대회 우승컵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 개막식을 3일 앞둔 지난달 28일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세계로봇축구연맹(Federation of International Robot-soccer Association, 이하 FIRA) 주최 2002년 FIRA 로봇축구 세계대회'가 열렸다. 2002 세계로봇축구대회에는 FIRA 랭킹 1위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아르헨티나, 독일 등 전세계 201개팀이 8개 리그에 참가했다.

그 중에서도 주 종목이었던 5대5경기 마이크로(MiroSot) 결승전 경기 결과 한국의 성균관대 KINGGO 팀이 독일의 도르트문트 대학 DURST팀을 상대로 한 골도 내주지 않는 훌륭한 경기 내용을 보여주면서 7대0으로 승리했다. 한국은 마이크로

축구 경기 뿐만 아니라 인간형 로봇축구리그 휴로봇 등 4경기에서 우승을 거뒀다.

이처럼 매년 8개 종목 중 반 이상의 종목에서 승리를 거두는 한국은 로봇축구의 종주국이다. 몇 년전 인기에 힘입어 방영되었던 드라마 '카이스트'를 통해 알려진 로봇축구는 1995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중환 교수가 참시했으며, 납작한 상자 모양의 로봇이 팀을 이뤄 오렌지색 골공을 골문에 넣는 경기이다.

이러한 로봇축구는 단순한 원리를 가진 축구와 달리 인공지능에서 기계공학까지 많은 기술들이 결합돼 있다. 우선, 주 컴퓨터와 자기편 로봇을 연결하는 무선 통신기술과 로봇을 재빨리 움직이게 하는 제어기술, 작은 크기 안에 모터와 부품을 집어넣는 기계공학이 필요하며, 공과 선수의 위치와 움직임을 파악하는 인공지능기술 등 각종 첨단기술이 복합적으로 동원된다.

구체적으로 로봇 축구 시스템은 로봇 3대 혹은 5대와 카메라, 통신장비, 1대의 주 컴퓨터로 이뤄진다. 이는 경기장 위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와 연결된 주 컴퓨터에서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방식이다. 카메라는 1초에 60회 이상의 영상을 찍어 주 컴퓨터로 보내며, 주 컴퓨터는 이것을 파악해 경기에 필요한 다음 행동을 무선으로 로봇에게 전달하게 된다.

이 방식으로 처음 시작된 경기가 정육면체 바퀴를 단 '마이크로'이며, 기술의 발전으로 올해는 두 다리도 갖는 사람모양의 로봇인 '휴로봇'도 등장했다. 아직 '휴로봇'은 움직임 구현이 까다로워 공을 차고 달리는 것은 힘든 실정이지만 앞으로 5년 후 FIRA컵 대회에서는 사람처럼 뛰어다니는 로봇 축구선수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기자
tellme@dongguk.edu



21세기 지식인 사전

탈식민주의 문화연구가

최정무

아시아 문화연구 시각을 전환하는 작업을 이끈 탈식민주의 문화연구가이자 여성학자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오버린·UCI) 동아시아학과 최정무(53) 교수.

1947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74년 서강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민속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미국 민속학의 중심지였던 인디애나에서 88년 민속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UCLA, UC 샌타바버라의 문화인류학 교수를 거쳐 현재 재직하고 있는 UCI 대학에서는 한국학 프로그램을 설립했다.

최교수의 연구는 서구중심주의의 극복과 지식 생산의 민주화를 실천하고, 한국사회가 갖는 역사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독보적이라고 평가받는다.

또한 서구 백인 중심의 '세계 페미니즘'의 한계를 인식하고 유색인종의 문제와 식민지 여성의 문제 등 여성학 내에서도 소외됐던 문제를 제기하고 민족주의와 페미니즘 사이의 갈등을 포착해 여성운동의 지평을 넓혔다.

현재 최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대 동아시아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동아시아 문화비평지 '포지션스' 부주관, 6개국어로 동시 발간되는 다국어 문화비평잡지 '흔적(Traces)' 등의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본교 문예창작학과와 본지가 공동 주최하는 전국 고교생 문학콩쿠르가 올해로 40회를 맞이했다. 올해 문학콩쿠르는 전국 353개 고등학교에서 시 501명, 소설 115명, 수필 245명이 예선에 응모했으며, 본선에서는 시 169명, 소설 45명, 수필 96명이 참가했다.

본 지면에서는 지난달 25일(토) 성황리에 끝난 제40회 전국 고교생 문학콩쿠르에서 수상한 작품을 일부 게재한다. 편집자

시부 당선자·심사위원

- 장 원** : 강원고 3학년 황석현
우수1석 : 안양예고 2학년 김영민
우수2석 : 무학여고 3학년 이주영
가작1석 : 안양예고 3학년 황희정
가작2석 : 이대부고 3학년 김지현
가작3석 : 서울외고 3학년 김지윤

신경림 (본교 문예창작학과 석좌교수, 시인)
 홍신선 (본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시인)
 문정희 (본교 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 시인)

소설부 당선자·심사위원

- 장 원** : 당선자 없음
우수1석 : 성남 수내고 3학년 정유선
우수2석 : 포항 유성여고 3학년 이윤정
가작1석 : 혜화여고 3학년 이소라
가작2석 : 용화여고 3학년 이정숙
가작3석 : 상명여고 1학년 윤지원

윤후명 (소설가)
 최시한 (숙명여대 인문학부 교수)
 황종연 (본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수필부 당선자·심사위원

- 장 원** : 오류고 3학년 최빛나
우수1석 : 대구 정화여고 3학년 김해린
우수2석 : 한성여고 3학년 채라다
가작1석 : 종대부고 2학년 양경언
가작2석 : 광명북고 1학년 기은혜
가작3석 : 경기 동화고 3학년 양선화

김택근 (경향신문 문화부 부국장)
 김호성 (본교 인도철학과 교수)
 이종대 (본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나는 한국문학의 태백산맥으로 간다



황석현
강원고 3학년

연 등

세망동 산 1번지
 무명시인의 집을 찾아갔네
 처마 밑에 매달린 연등
 주춤거리며 내 뒤를 따랐네
 구겨진 선거포스터가 붙어 있는 집
 법 앞에 평등한 세상보다
 인정 앞에 평등한 세상 꿈꾸는 시인
 불켜진 창 틈새로 인기척 새어나왔네
 똑똑똑 방문 두드리니
 허름한 문 열어 반갑게 맞아주었네
 산동네 셋방살이
 구석자리 차곡차곡 쌓아둔 책들
 해묵은 연대를 휘감고 있었네
 나는 시인에게 물었네
 계절이 수 없이 바뀌도록
 당신의 삶은 부재중인가요?
 아닙니다.
 나는 오직 시를 쓸 뿐입니다.
 창 밖의 어둠은 깊어만 가고
 처마 밑 연등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네
 시인과 함께
 비탈진 언덕에 올라
 도회지 하늘의 가물거리는 불빛을 바라보았네
 그러나 어느것 하나
 시인의 길 비추질 못하였네
 툭툭 모두 털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시인이 걸어가듯 저 좁은 골목길까지
 환하게 연등 비추어지길 바라며
 나는 여러번 뒤를 돌아보았네.



김영민
안양예고 2학년

시 우수1석

연 등

따뜻한가요?
 '온수'를 누르면 따뜻한 물이 나올거구요
 어디 나가실 땐 '외출'을 누르고 가세요

튼튼한 연등 하나를 달고도
 아버지 뭔가 불안하신가보다
 요 며칠째 학교길에 들르시는 지하철칸방
 할머니 귀에 대고 계속 말을 늘어놓는다

방바닥이 차가와 날마다 시려운 허리
 제발좀 낮게 해달라고 하시는 할머니
 아버지 트럭에서 연등 하나 짊어지고 다가와
 캄캄한 할머니의 지하방을 밝힌다

겨울이 다가오는 아버지 트럭엔
 따뜻함을 주는 촛불이
 꺼지지 않게 은은하게 밝히도록
 연등이 줄을 썼다

시 심사평

경험과 상상력 바탕으로 습작하길

시의 힘은 어느 갈래의 경우든 마찬가지로 쓴 사람이 글감을 얼마만큼 새롭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 나온다. 그 해석은 생활 속에서의 구체적인 경험과 어울릴 때 더욱 읽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만든다.

이번에 당선작으로 올린 황석현 군의 '연등'은 글감에 대한 해석도 해석이지만 무엇보다도 삶의 구체적인 정황을 사실감 있게 잘 드러내고 있다는 데에서 시적 힘을 얻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산동네의 가난한 시인을 매개로 삶의 진정성이 무엇인가를 나이에 걸맞지 않게 노성찬 목소리로 들려주는 대목도 돋보인다. 한 마디로 적지 않은 시쓰기의 훈련량을 집적해 하고 있다. 앞날의 대성을 기대한다.

김영민 군과 이주영 양의 작품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할머니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 김영민 군은 노망에 든, 그러면서도 병석에 누운 할머니의 정황을 개괄적으로, 반면 이주영 양은 노점에서

냉이 파는 할머니를 그리며, 대상의 세부를 감각적으로 각기 잘 그려내 주고 있다.

그밖에도 가작으로 뽑힌 황희정 양의 작품은 버스기사를 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추어탕을 매개로 생동감있게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차의 마등이 바로 연등임을 발견해 내는 눈의 시력도 예사롭지 않았다. 김지현, 김지윤의 작품은 활달한 상상력이 돋보이고 있으나 그만큼 사실감이 뒤지는 것이 흠이라면 흠이었다.

이들 수상작 외에도 일태은 군과 강진아 양의 작품들 또한 심사위원 손에 끝까지 남아있었다. 사실도 밝혀 두어야 할 것이다. 그만큼 이번 작품들의 수준이 높아 심사를 어렵게 만들었던 셈이다. 더욱이 글감이 여는 해에 비하여 어려운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았던 사실은 고무적이지 않을 것이다.

신경림, 홍신선, 문정희



시 우수2석

연 등

이주영
무학여고 3학년

버스 창가에 기대어
 하루살이때들이 엉키고 엉킨듯한
 빗물 휘어지는 소리 들은 적 있다
 그 휘어짐 너머로 보이는 연등에
 눈을 담는다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로
 이어지고 이어지는 연등
 만약 피었다면
 우리 할머니 미소 같았을까
 뿌리를 밀어 넣은 잡풀마냥
 도로 시장통에서
 냉이 파시던 우리 할머니
 연등의 꺾바퀴를 돌고 돌아
 할머니의 시린 삶이
 빗물처럼 콧끝에 맺히고
 눈가엔 금새 붉은 물이 든다
 이내

가로등의 불빛은
 연꽃을 피워올리고

가만히, 가만히 들었습니다
 피어오른 연꽃의 미소가
 빗물을 물들이며
 허공에서 연신 몽그라지는 소리를

소설 심사평

선명한 인상과 단정한 구성이 관건

이번 고교생 문학콩쿠르 소설부문 본선에서는 총 48편의 작품이 응모되었다. 응모자들의 수준에 당연히 많은 편차가 있었으나 장래가 촉망되는 문학적 재능이 엿보여 심사자 모두 기쁘고 긴장된 마음으로 작품을 읽었다. 문예창작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례해서 소설 창작의 능력 또한 향상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야기를 구성하는 솜씨, 대상인물이나 상황에 대한 묘사, 조리있고 흥미있는 화법 등 단편소설의 여러 영역에서 많은 응모자들이 다듬어진 기량을 보였다. 소설부문 작품들의 중요한 관건은 '지갑'이라는 소

재를 활용하여 얼마나 인상이 선명하고 구성이 단정한 작품을 써내느냐 하는 데 있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안이한 발상, 익숙한 화법을 보인 반면, 수상작들은 경제적으로 이야기를 펼치면서도 명확한 주제 처리 솜씨를 보여주었다. 수상자 모두에게 축하를 보내며, 나머지 콩쿠르 참

여자 모두에게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 내년에 좀 더 향상된 작품을 만나게 되기를 기대한다.

윤후명, 최시한, 황중연

지갑과 가족사진

소설 우수1석



정 유 선
수내고 3학년

내 앞에 목표물이 나타났다. 이 녀석은 참 운도 없는 놈이다. 나의 목표물이 된 이상 그 놈은 그것이 필요해서 주머니를 뒤적거리야만 자신이 그것을 잃어버렸는지 알 수 있다. 그러곤 이렇게 말하겠지.

“어떤 새끼지 잡히면 죽을 줄 알아!”라고 나는 그 놈이 말하게 될 바로 그 ‘어떤 새끼’이다. 아무튼 나는 내 목표물이 된 그 놈 앞에 다가갔다. 그놈이 눈치채지 못하게 걸어간다. 작업에 들어가기 좋은 지점에 왔을 때 나는 그를 보며 미소를 머금는다.

나의 미소가 기분이 나쁜지 그놈은 이마에 잔뜩 주름을 잡으며 걸음을 재촉한다. 바로 이때! 내가 원하는 각도, 알맞은 타이밍, 적절한 그놈의 빠르기,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 나는 앞으로 돌진하며 그놈을 살짝 건드리고 지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나의 목표물은 철저히 나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놈과 살짝 부딪치고 나면 내 손에는 언제나 두둑한 것이 쥐어진다. 내 손에 쥐어지는 그것은 항상 두둑하다. 이것 또한 기술이다. 이 말은 곧 아무나 내 목표물이 될 수 없다는 말과 상통한다. 내 목표물은 곧 두둑한 그것이다. 나의 목표물은 머리 끝에서 발 끝까지 빛이 나아 한다. 이 빛은 보통사람이 느낄 수 없는 빛이다. 나의 목표물이 내는 빛은 내 눈으로만 감지할 수 있다. 이 빛은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feel이라고 말해도 되겠다. feel이 제대로 꽃혔을 때 나는 작업에 들어간다.

아까 그놈에게서 잠깐 빌린 그것을 열어본다. 이 순간은 정말 가슴이 떨리다 못해 심장이 미친 듯이 박동한다. 마른 침을 꿀꺽 진정시키고는 그것을 연다.

난 가장 먼저 그것이 뜯어진 부분을 양 엄지 손가락으로 잡고 벌려본다. 파랗다 못해 누렇게 시들해진 배추잎이 나를 반긴다. 수십 장의 배추잎 중에서 한 장을 남겨두고 모두 꺼낸다. 내가 한 장을 남겨두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것에 이 배추잎이 없으면 더 이상 그것은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니깐 꼭 한 장을 빼 놓는다. 그리고 다른 틈새로 또 다른 것을 찾는다. 딱딱하고 직사각형 모양의 ‘신용카드’라고 써어진 것이 눈에 들어왔다. 난 이것을 아주 싫어한다.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속

해있는 클럽회장이 ‘신용카드’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수입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을 보자마자 나는 툭 하고 분질러 버렸다. 이번에는 얇은 종이 잡혔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두 번째 것이다. 이 얇은 종이는 ‘가족사진’이다. 이 가족사진은 내게 배추잎과는 다른 기쁨을 안겨준다. 그 뒤라고들 하던데…….

심리적 안정감이었던가. 아무튼 가족사진은 나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도록 해준다. 가족사진까지 빼고 나면 나는 달랑 배추잎 한 장만이 쓸쓸하게 있는 그것을 우체통에 속 넣는다. 이렇게 해서 나의 임무는 끝나는 것이다.

“어떤 새끼지 잡히면 죽을 줄 알아!”라는 그놈이 할 말을 생각하곤 호탕하게 웃으며 나의 다른 목표물을 찾아 거리를 헤맨다.

나는 처음부터 나에게 담긴 그들이 말하는 ‘어떤 새끼’가 아니었다. 오늘 날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내가 꼭 기억하는 날이 있다. 1988년 1월 23일. 이 날이 아마 내가 어떤 새끼가 되는 계기가 되었던 날 같다. 그 날 부모님께서는 외할아버지의 제사 때문에 포천 송우리로 내려가던 참이었다. 그날따라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려서 나는 흑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그 흑시나 했던 마음이 현실로 닥치고 나니 나는 내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었다.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면 꼬마 때문에 급정지를 했지만 길이 워낙 미끄러워 차가 세 바퀴를 연속으로 돌다가 달려오는 트러퍼 충돌한 것이다. 그날은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14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눈물부터 난다. 나는 지금도 내 불을 타고 내려오는 뜨거운 물줄기를 손으로 훔쳐냈다. 형편이 좋지 않아서 얼마 아빠 두 분 다 밤낮으로 일만 하신 덕분에 나는 가족사진 한 장 없다. 그 래서일까. 다른 사람의 가족사진을 훔치는 짓을 한 이유가. 가족이 함박 웃음을 하고 있는 사진을 보면 마치 내 가족사진을 보고있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졌다.

이생각 저생각 하면서 길거리를 헤매고 있을 때 누군가가 뒤에서 나를 불렀다. 흑시 경찰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움직였다.



“이봐! 나야! 흑새라고!”
“난 또 흑새인줄 알았잖아.”
“크크, 겁먹기는 어디 가서 소주나 한잔 걸칠까?”

“그렇잖아도 생각이 간절했는데 가지, 오늘은 내가 쏠게.”

흑새는 우리 클럽에서 손이 가장 빨라서 불려진 별명이었다. 별명 못지 않은 그의 외모는 주위 사람들로 부터 경계심을 갖게 한다. 뾰족한 턱과 코가 중추를 이루어 양 갈래로 시원하게 찢어진 눈하며 족제비를 떠오르게 하는 얼굴이다.

이 녀석은 외모와는 다르게 마음은 좋다. 남도 배려해 줄 줄 알고 제일 기특한 것은 자신도 그것을 훔칠 때 가족사진을 모아 나에게 넘겨준다. 이것만 보아도 마음 씀씀이가 좋은 친구라는 생각이 든다.

그와 함께 가까운 소주방으로 갔다. 소주 세 병을 시키고 안주로 닭뿔집을 시켰다. 이 집은 닭뿔집 맛이 예술이다. 짬뽕을 하다가도 끝맛은 달콤해지니 모두들 닭뿔집만 찾는다. 그날따라 흑새는 소주잔을 유난히도 들이켰다.

“나쁜 기집년 같으니라고. 내가 그 기집년

때문에 목숨걸고 도둑질 해서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해줬는데…… 나쁜년…… 탄 남자랑 눈이 맞아! 으이씨! 나쁜년! 나쁜새상! 다 죽어라!”

아마 그 미애라는 여자와 헤어진 모양이다. 흑새녀석이 그 여자와 만난 이후로 위험하게 도둑질을 해줬는데 지금이라도 헤어졌으니 다행이다. 흑새마저 감옥으로 간다면 나는 정말 외톨이가 되기 때문이다.

그 녀석을 부축해 집으로 데려왔다. 고향이 가 끼어 축축한 침대에 그를 눕혔다. 만취해서 잠에 골아 떨어진 그녀석을 보자 웬지 모르게 마음이 저려왔다. 흑새도 미애라는 여자와 헤어진 지금 심정이 14년전 내가 부모와 헤어졌던 심정과 비슷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아까 내가 훔친 그것에 들어 있던 가족사진과 흑새가 준 가족사진을 들고 벽 앞에 섰다. 지금까지 붙여둔 가족사진이 2평짜리 방의 벽 한칸에 가득 채워졌다.

한 자리만이 남은 벽 한 귀퉁이에 흑새가 준 사진을 붙였다. 그리고 옆으로 돌아서서 새로운 벽에 내가 오늘 훔친 가족사진을 맨 위에 붙이기 위해 낡은 나무의자에 올라섰다.

전국 고교생 문학콩쿠르



지갑 소설 우수2석

이윤정
유성여고 3학년

남기고 싶은 한마디

거리는 가득한 햇살로 영망이었다. 영아네 과일 가게에 들러 메론 하나를 사서는 곧장 엄마에게로 발걸음을 옮겼다. 병원은 언제나 그렇듯이 북적거렸다. 새하얀 병원 안에는 사람들이 남기고 간 발자국이 햇살을 가득 품은 채 여기저기 찍혀 있었다. 난 정말이지 저 지독하게도 따스한 햇살이 싫었다. 그리고 이 메론도.....

엄마는 막 아침식사를 끝낸 상태였지만 내가 사온 메론을 꾸역꾸역 다 먹었다. 그리고 날 향해 빙그레 웃는 것이다. 메론을 다 먹은 것이 마치 금메달을 딴 운동선수의 업적에 비길만하다는 듯이..... 병실 한 칸에 박힌 냉장고의 입을 열고 머리를 입 속으로 들이밀자 썩은 계란 냄새가 내 얼굴을 갈겼다. 나는 얼른 머리를 빼고 문을 닫아버렸다. 며칠 전 사다 준 샌드위치가 미생물과 몸을 섞고 있는 냄새일거라고 짐작은 했지만 치울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나는 내가 싫어하는 것들에 대한 목록에 썩은 샌드위치를 덧붙였다.

목록을 밑에서부터 읽어본다. 썩은 샌드위치, 메론, 햇살 그리고 엄마.....

올해 선이 다 되어버린 엄마는 뇌종양이었다. 그렇다고 드러내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죽음의 뇌종양은 아니었고 정말 작은 혹이 있는, 수술만 하면 멀쩡하게 완치되는 뇌종양이었다. 엄마의 그 명줄은 원래 고래심줄보다 더 질기고 독했다. 남편을 잡아먹은 계집년이라고 욕하고 죽어가던 할머니에게까지 그래 내가 잡아먹었다 하고 대들던 강인한 여자였으니까.

매일마다 시장 모퉁이에서 설익은 과일 따위를 팔았고, 한번도 단 한번도 휴일이라는 날을 가져본 적이 없는 아줌마였으니까. 그렇게 지독히 산 것치고 수술만 하면 완치되는 뇌종양을 얻은 것은 좀 심했다. 이런 분명 신의 실수라고 나는 생각했었다.

엄마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는 재빨리 병원을 빠져나왔다. 11시 9분. 아르바이트에 조금 늦었다. 난 얼른 도로에 세워진 택시 중에 하나를 골라 타고는 식당으로 향했다.

일을 하기 시작한 건 열 살이 조금 넘어서부터였

다. 우유배달과 신문배달은 기본이었고 시간이 조금 남으면 인형의 눈을 붙이는 것까지 했다. 내가 그렇게 일을 해야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뿐이었다. 엄마의 지갑, 엄마는 지독하고도 약삭스럽게 번 모든 돈을 엄마의 까만 지갑 속에 다 넣어버렸다. 그리고는 단 한 개의 동전도 생활비나 내 용돈으로 꺼내지 않았다. 한번은 5일 정도를 굶주린 배로 지낸 적이 있었다. 다섯 평도 채 안되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나 혼자 5일을 굶고 있는데 엄마는 그 5일 동안 일본도 아니 일초도 나에게 들리지 않았다. 결국 내가 살아남은 건 이웃집 아줌마가 먹으라고 가져다준 죽 한 그릇 덕택이었다. 그 뒤로 나는 돈이란 것을 벌었다. 물론 엄마의 그 지갑처럼 나도 내 지갑을 사서 그 속에 돈을 넣어서 다녔다. 그리고 엄마의 지갑이 그랬듯이 단 한번도 엄마를 위해 지갑을 열지 않았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유일하게 엄마에게 배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었다.

"어휴, 지금 오면 어떡해. 벌써 20분이나 지났잖아."

미영이네라고 적힌 식당에서 낯익은 얼굴이 나를 향해 중얼거린다. 나는 길어질 잔소리를 막기 위해 얼른 입을 열었다.

"죄송해요. 앞으로 늦지 않을게요."

재빨리 말을 뱉어 놓고는 카운터 쪽에 걸린 앞치마를 입는다.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로 미영이네라고 쓰여진 앞치마. 미영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입 속을 땀땀다. 미영이네.....미영.

엄마의 이름은 미영이었다. 미영영. 엄마의 이름이 미영이었다는 걸 처음 알았을 때는 유쾌할 전이었다.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새벽에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 그 날 새벽 차가운 공기를 뚫고 어떤 아주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뛰라고 외쳤다. 나는 한동안 그게 꿈인 줄 알았다. 내 머릿속은 잠의 요정이 잔뜩 해집어놓아 엉망이었으니까. 그때 전화 속 아주머니가 엄마라는 단어를 외쳤고 험글어져 있던 머리속이 갑자기 깨닫혔다. 전화를 끊은 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보호자에 내 이름으로 병원

수속을 마친 상태였다. 전화를 건 아주머니는 엄마의 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아니 이렇게 멀쩡한 딸을 두고 왜 저 여편네는 공상맞게 혼자 산대? 하여간 미영이 저년 심보가 보통 심보여야지. 아프면 진작 말한테 알리던가. 괜히 숨기고 있다가 이게 된 꼴이야."

엄마와 내가 떨어져서 사는 건 엄마 때문이 아니었었다. 내가 먼저 엄마의 집을 나왔으니까.

아무튼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엄마는 지갑을 애타게 부르거나 또 불렀었다.

"내 지갑. 내 지갑 줘....."

수술이 끝나고 병실로 왔을 때도 엄마는 나를 보더니 자신의 지갑을 내 놓으라고, 내년에 훔쳐 갔지라며 내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그리고 3개월 후 엄마는 치매를 앓기 시작했다. 신이 실수를 알아채고 다시 엄마의 인생을 수정한 것이다.

엄마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졸끔 지갑을 위해 먹고 사는 사람처럼 보였다. 자기 전에는 꼭 지갑을 만져보고 잠이 들었고 밥을 먹기 전에도 지갑을 봐야만 했다. 어쩌다 지갑이 보이지 않으면 엄마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누구든지 머리채를 끌며 외쳤다.

"야 이놈의 도둑놈아. 내, 내 지갑, 지갑 내나라. 이놈아....."

엄마는 오직 지갑만 생각하는 것 같았다.

식당은 점심시간이 다쳐오자 복잡해졌다. 정신을 놓쳐버릴 듯이 바쁘게 움직이며 찌개와 밥을 나르고 있을 때 주인집 아주머니가 나를 불렀다.

"전화가 왔는데..... 짐마씨 어머니가 지금 짐마씨를 급하게 찾는데, 가보지 그래?"

병실문을 열자 초췌한 모습의 엄마가 침상 위에 앉아있었다. 결국 엄마의 부름 덕분에 나는 식당에서 빠진 시간만큼 돈을 받지 못할 것이다. 짜증이

났다. 문을 쾅하고 닫자 엄마가 내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왜 또?"

내가 지르는 소리에도 놀라지 않고 엄마는 빙그레 웃기만 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작게 비쳐 들고 있었다.

엄마는 가까스로 몸을 일으키기가 싫더니 자신의 머리맡에 놓아둔 무언가를 집어 들고는 내게로 걸어왔다. 그리고 내 손에 엄마의 손을 얹고 집어온 물건을 쥐어주었는데 그건 바로 낡아서 다 헤어진 엄마의 지갑이었다.

"내가 그동안 참 독하게 살아. 돈이란 돈은 모두 그 지갑에 넣어두고 한 푼도 꺼내 쓰지 않았지. 진미야....., 그거 너 가져. 어차피 내가 어른이 되면 주려고 했던 거니까. 너 주려고 모았거든. 진미야..... 너 그 돈 가지고 이 엄마처럼 살지 마라. 엄마는 네 아버지 죽고 돈 가진 게 없어서 평생 이리고 살았어. 너 그렇게 살지마. 알았지?"

엄마의 말에 괜히 눈물이 났다. 가슴에 쌓인 눈이 불바람에 녹듯이 그렇게 녹아 내리고 있었다. 엄마를 꼭 껴안아주고서 나는 내 목록의 이름을 고쳤다.

썩은 샌드위치, 메론, 햇살 그리고 우리 엄마.....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목록. 병실에 걸린 창을 열자 상쾌한 하늘이 한가득 들어왔다. 병원 앞 거리는 가득한 햇살로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다.

△I'll be back.
△서울 처음 왔당~ 울산보다 훨씬 추워~
△조교라고 하신 분이 인상이 좋으시네요.
△정말 어려웠어요. 내년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응모할게요. 성의 없게 써서 죄송합니다. 인양예고 문창과 파이팅!
△정말 오고 싶었던 동국대에 와서 기분이 좋아요~ 비록 잘 쓴 것 같진 않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 - 행신고 선양이
△비록 제가 만족할 만큼 쓰지 못하고 동시처럼 T-T 썼지만...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동국대에 감사 드립니다.~
△수필은 역시 어렵죠. 전 또 어설픈 거지. '이상' '입장' '진리' 이런 단어를 쓰는데, 겨우 전 '조화'란 단어 하나만 남기고 갑니다. 동대 너무 멋져요. - 코끼

리 동상에 놀란 시골이기가
△안니들 되게 친절하시네요. 상타진 글렸지만 뭐가 얻어가는 건 있는 것 같아서 기뻐요~^^
△부산 해동고 최강 YAK FIGHTING!!
△동대신문사 친절해요~ 멋져!!
△대 광복고 짱이다!!
△대 김해중양여고 중앙 문예부 짱이었다.
△^^ 오늘 재미있었지요.
△아무리 불교 재단이라지만 주제 '연등' 이라니 꽤 당황스러웠음. ---:
△연등이라는 주제. 정말 난감한 주제. 다음번엔 조금은 쉬운 걸루어~ 근데 수고하셨습니다.
△논산 대건!! 동훈, 재승, 동국을 빛내다.
△다음 기회를 봐야 될 듯. 41회 때도 꼭

다시 본선 참가해서 장원 할거예요~.
△좋은 경험하고 갑니다..
△상명여고 1학년 윤지원^^ 책 잘 읽겠습니다.
△대우에서 온 고3입니다.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무지 못쓰고 나왔어요. 아~ 아쉽다.
△와서 쓴데 큰 의미를 두기로 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면 더 좋구요. 오늘 신경림 씨 문학 강의 듣는 게 기대되요!
- 대경안고 안아름
△전 소설 썼는데요. 600자 원고지 4장 반 썼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어요. 인양예고 문창과 파이팅!
△소설 주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동국대 꼭 오고 말겠다. - 경동고 혁명이.

△지금은 힘들지만 나올 때는 웃을수 있을. - 제주 오현고 고건
△다음엔 '연등' 같은 주제 말고 폭 넓은 주제 주세요. π.π
△고3이 수업도 빼먹고 멀리까지 발차타고 왔는데, 글썩요.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움도 많이 남고 또 머리가 많이 아프네요.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동대 문창과 03학번을 꿈꾸는 소녀예요. 동대 너무 좋구요. 좋은 글 쓰고 갈게요. I LOVE 동국대~ ~ - 한성여고 3학년 채리다
△여태까지 다녀본 대회 중에서 '남'이 제일 맛난 곳!!
△처음 동대 오는데 좋네요 ^^근데 시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π.π 멀리서 왔

데 아쉽네요.
△매일 동국대 밥 먹을래요.
△역시 시제는 불교와 관련된 것이었다. 어렵고, 난처해서 힘들었지만, 그래서 수상 못하고 갈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면 내가 글을 왜 써왔는지 그리고 왜 쓰려고 했는지 알 것 같았다. - 성남고 신문반 대빵
△저도 03학번 되고 싶어요~~ 제발 제시를 인정해 주셨으면.
△회경여고!! 최강 9반!!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해해 참가하는데 의미를 갖기로 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국대 백일장 참가하는 예쁜 학생입니다. 꼭 상 탈 수 있겠죠?

△동대 문예창작 03학번을 꿈꾸는 여학생 화부형입니다. 지방 학생들 참석 많이 되도록 학교 측의 배려를. - 어느 학부형 겸 교사
△힘들어서 괴로웠지만 열세미 썼어유~
△참가하는 것에만 의의를 둔다는 율리 픽 정신! 심분 발휘하고 갑니다. 평소 글을 컴퓨터로만 써서 지금 환경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습니.
△그래도 이왕 동대까지 왔는데, 사실이 많았던 걸까요. 좋은 글이 나오지 못한 것 같아요. 더구나 두 시간 남짓한 마감 시간에 쫓겨서, 짬, 아쉬움이 더 앞선 대 회였네요. 이번에 상못타면 다음 기회를 노려야지. ㅋㅋ 구리고 짱!!
△어려웠어요~!! ---:~

어머니의 소리

“딸내미!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졸 알았다니 여태 자고 있네! 지각이야, 얼른 일어나!” 내가 아침에 눈을 떠 가장 먼저 듣는 소리는 늘 똑같다.

“아우, 알았다고! 일어나더라고요!” 나의 앙칼진 대답도 만날 다들 바 없다. 엄마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란 마냥 나를 짜증스럽게 만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릴 소리에 불과하다. 북적이는 시장에서

의 상인을 연상케 하는, 유난히도 크고 억척스런 목소리이다. 그런 목소리로 허구 한 날 한다는 소리라곤는 돈이야기, 공부이야기이니 난 내가 엄마의 목소리를 짜증스러워 하는 것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나의 짜증스러운 마음을 엄마에게 굳이 감추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늘 엄마에게 엄마의 그 목소리가 나 싫다고 큰 웃음 소리도 싫다고 말하곤 했다. 그 후로 엄마는 가족모임 등 사람이 많이 모인 자리라면 내 눈치를 보시며, 소리내어 웃지 않으셨다.

아니, 엄마가 내 눈치를 보신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엄마에게 눈치를 주고 있었던 것이다. 엄마를 편안하게 웃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해 5월, 중간고사를 마치고 이른 시간에 집에 돌아왔다. 엄마는 낯잠을 주무시고 계셨고, 물론 엄마의 그런 모습조차 나에게겐 한심해 보일 뿐이었다.

시침도 끝났고 무얼 할까 고민을 하는데 딱히 할 일이 생각나지 않았다. 이래저래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가 할 일이 생각 나서 장롱을 열었다. 이제 슬슬 날씨가 더워지니까 작년 여름 옷을 꺼내보려 했다.

이 옷 저 옷 부쩍이더 이렇게 입을 옷이 없나며 내심 앞에서 자고있는 엄마를 원망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장롱 깊숙이 있는 셔츠 하나를 꺼냈을 때 그 속옷 브랜드의 오래된 상자가 보였다. 상자가 낡은 것으로 봐야 속옷이 되어있던 것은 같고 해서 상자를 꺼내보았다.

그 안에는 병원에서 찍었을 법한 선생이 사진과 책 몇 권, 녹음테이프 몇 개가 들어있었다. 가만히 사진을 보니 누워있는 아기의 발끝에 내 생일이 적힌 종이 달려있었다.

“그럼 이 아기가 나인가?” 다시 한번 쳐다 봐도 난 잘 알 수가 없었다. 그냥 내 생일이 적혀 있으면 ‘나인가 보지 뭐……’ 할 뿐이었다. 사진 뒷면을 보니 낯설지 않은 투박한 글씨가 보였다. ‘사랑하는 우리 둘째. 건강하게 태어나 주셔서 고맙고, 사랑한다 아가야.’ 엄마가 쓴 건가 싶어서 신기했다. 이런 건 드라마에서나 보았기 때문이었다.

같은 상자 안에 들어있던 책은 태고책이었다. 나는 적어도 우리 엄마는 태고같은 건 전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TV 드라마 속의 예쁜 연예인들이 태고 음악을 틀어놓고 뱃속의 아기에 대성스런 목소리로 “아가야”하고 태고를 하는 것을 보며, 우

리 엄마는 저런거 했을 리도 만무하고, 어울리지도 않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 예상과는 달리 엄마의 태고 책에는 엄마의 정성이 묻어 있었다. 아기에 편지를 쓰는 칸에는 나에게 엄마의 기대와 사랑이 가득 차 있었고, 나는 그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책들을 훑어보고 몇 개의 테이프를 보았다. 그 각각의 녹음테이프에는 번호와 몇 월 몇 일까지라는 기일이 적혀있었다. 무엇이 녹음되어있는지 궁금해서 상자 채로 내방으로 가져와 제일 첫 번째 테이프를 카세트에 넣어보았다. 재생버튼을 누르니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한참 동안 음악만 흘러나오길래 카세트를 막 끄려는 순간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가야, 오늘 병원에서 네 심장소리를 들었단다. 그 소리가 엄마를 어느 정도 기쁘게 만들었는지 너는 알지 못 할 게야. 내 소중한 아가야……”

잔잔한 음악과 함께 나오는 여자의 목소리는 지금 건너방에서 자고있는 엄마의 19년 전 목소리일 것이다. 그리고 그 아가이는 19년 전 나이었지, 순간 기분이 묘해졌다.

‘엄마의 목소리가 저토록 듣기 좋은 소리였다. 나도 기억할 수 없는 19년 전 나의 심장소리가 엄마를 그토록 기쁘게 했구나.’

여러 가지 생각으로 코 끝이 정해져왔다. 엄마의 목소리는 내 생일 사흘 전까지 녹음 되어있었고, 그 테이프를 다 듣는 동안 난 결국 죄책감과 감사함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내가 듣기 싫어하는 엄마의 억척스런 목소리를 만든 사람은 바로 나였던 것이다. 내가 걸어온 19년의 세월이 결국 엄마가 걸어온 스무 몇 해를 엄마 스스로 버리게 만든 것이었다. 엄마의 예뻐던 목소리조차도…….

엄마는 나조차도 모르는 나를 알고 계신 분이였다. 엄마는 나의 첫 번째 날부터 19년째 날까지 모두 알고 계신 것이다. 나의 첫 심장소리에 그토록 기뻐하셨다는 엄마에게 나는 여지껏 얼마나 모진 말만 했었나. 나의 심장소리 하나에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셨을 엄마를 그 동안 나는 기쁨으로 여겨왔는가 갖가지 질문이 나를 궁지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래,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엄마의 소중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은 나는 뻔뻔스럽게도 만족할 줄도, 감사할 줄도 몰랐다. 엄마의 그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 해왔고 오히려 투정이 더 많았다.

자신의 것을 모두 포기하고 오직 자식만 위해, 가정을 위해 20년을 살이온 엄마……가만히 손을 잡아본다.

“아이고, 깜짝 잠들었네. 시험은 잘봤어? 점심 먹어가지? 아이구구구 뭘 해 먹냐.”

아주 잠시 당신만의 시간을 갖던 엄마는 다시 나의 19년 인생길에 흡수되어 말없는

수필 심사평 지나친 기교 버리고 ‘자신’ 찾아야

수필은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글이라고 말할 하지만, 그것을 ‘문학’으로까지 끌어올리기는 정말 쉽지가 않다. 그런 만큼 수필이야말로, 격조 높은 향기를 피우기 위해서서는 많은 공부와 필요한 장르라 생각된다.

매년 느끼는 바이지만, 대개 학생들은 지나치게 많은 서사(敘事)를 들려놓고 그 이야기에 짓눌리거나, 자기 생각만을 별다른 상관물(相關物)의 매개 없이 적나라하게 노출해버리는 양 극단의 어느 하나에 빠지고 있다. 일상 속에서 흔히 겪는 경험세계의 사건에 빚대어 자기 생각이나 서정(抒情)을 펼쳐내야 할 것이다. 그것도 문학적으로 말이다.

‘소리’라는 글감을 소화함에 있어서도

대개 상투성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경험세계의 한계 탓이었지만, 가족이야기가 많았다.

모두가 가족 사이의 사랑을 환기하는 따스한 마음이 드러나 있는 가운데 ‘어머니의 소리’(최빛나)는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통한 자기 성찰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쉽게 장원으로 선(選)하였다. ‘소리’(김해린)는 응모작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가족이야기가 아니라 교실 속의 소리를 연상하면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신선하고, 글 자체도 힘이 느껴진다.

금년에도 너무나 기교적인 글쓰기로 기성을 흥내내는 글들을 제외한 것은 유감이었다.

김택근, 김호성, 이종대

수필 장원



최 빛 나
오류고 3학년

희생자로 자리잡으신다. 식사준비를 하고 계신 엄마 옆에 가만히 다가서서 어린 아이처럼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수다스럽게 이야기해본다. 참 오랜만이 엄마와의 대화이지만 어색하지는 않다. 나의 첫 심장소리까지도 기억해 주시는 엄마이기 때문일 것이다.

엄마는 수다스러운 내가 쉴 새없이 조잘거리는 이야기를 들으시며 정말 오랜만에 크게 소리내어 웃으셨다. 화룡연한 웃음 뒤에 잠시 움찔하시며 나를 쳐다보시는 엄마 모습에 또 다시 마음이 아팠지만 우리는 눈을 마주치고 더욱 큰 소리로 환하게 웃어주었다. 엄마의 거친 목소리는 중요로웠던 나의 19년 인생의 흔적일지라. 듣기 좋고,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세상 어느 소리보다도 고귀한 소리일지라. 나의 ‘어머니의 소리는…….

수필 우수1석



김 해 린
정화여고 3학년

소리

수요일 3교시 문학시간. 나른함을 포복이는 따뜻한 햇살과 공간이 시원스레 불어오는 바람이 잠을 부추긴다. 뒷자리에 앉은 것은 고등학교 3년 동안 열 번은 넘게 들었을 법한 김소월의 ‘진달래 꽃’ 평론. 앞의 열 번이 다 그랬던 가장 먼저 걸디란 밑줄을 끌어안는 것은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줄을 긋다 말고 나는 펜을 놓아 던진다. 내 앞에 놓이게 될 시에 대한 해석은 지난번 그것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을 테니까.

창가에 앉은 나는 물끄러미 밖으로 고개를 돌려본다. 도로가에 자리잡고 있던 학교가 30년이라는 시간을 뒤로한 채 선중턱으로 이차한 지도 벌써 3년이다. 하루의 정부를 학교에서 보내는 나로서는 매캐한 도시를 떠나 전원에 자리잡은 느낌이랄까…….

늘 익숙한 프레임에 펼쳐지는 풍경은 어릴 적 아빠와 나의 모습이다. 커다란 손으로 내 겨드랑이를 간질여대던 아빠, 나는 ‘아빠 그만이!’를 외치며대며 얼마나 웃었었나. 창밖으로 보이는 나는 연녹색 옷을 입었다. 바람의 스침에 따라 어릴 줄 모르겠다는 듯이 몸을 흔들며 대고 있다. 웃음이 나온다. 웃음보다는 미소란 말이 더 적절할 듯 싶다. 그 순간도 잠시 눈에 덕지덕지 붙어 대는 잠기운에 나는 그만 눈을 감고 만다. “이 행은 무슨 표현법이겠냐?” “역설……” 선생님의 계속되는 열강과 모방생각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돈다. 슬며시 눈을 감고 있는 나를 보며 너석은 분명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을 테지.

눈을 감고서 가만히 주파수를 맞춰본다. ‘지잉 지지직’ 거리며 나만의 라디오는 열심히 무엇인가를 잡으려 애쓰고 있다. 순간 크게 들리던 문학 선생님의 목소리가 속하니 사라진다. 그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을 녀석의 목소리까지도……. 쉼이 쉼이. 처음으로 맞춰진 내 라디오의 주파수. 흡사 파도소리 같지만 분명 바다는 아니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아니나 왼쪽, 이제야 알겠다. 키 알 수 없던 소리는 아까 내가 보던 창밖. 키 큰 아저씨 나무들이 바람의 간지럼에 웃어대는 소리다. 이런 소리를 만들고 있을 줄은 몰랐는데…….

“봄의 고향악이 울려 퍼지는……”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는 노래. 어디선가 이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1층 음악실에서 음악 수업을 받고 있을 후배들의 목소리다. 작년 우리반 아이들의 목소리와 어울어지던 나의 피아노 반주, 담당반 국영수 수업시간이 싫어서 나는 얼마나 음악시간을 기다렸던가. 주파수를 조금 더 올려볼까. “하나, 둘, 하나, 둘” 교내 테니스부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때쯤 되면 운동장을 도는 테니스 부원들, 1학년 때 같은 반이던 은영이의 얼굴이 떠오른다. 까맣게 그을린 피부가 천만이러던 녀석, 띠에 실장되었던 나와 친해지고 싶었던지 전화도 자주하곤 했었는데. 그리고 보니 요즘은 도통 보이지가 않는다. 환하게 웃으면 남들보다 하얗게 드러나던 이가 참 애썼는데…….

다시금 원래의 그것으로 돌아와 본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진달래 꽃’ 평론. ‘조러바 고’란 구절에 줄을 긋는 걸 보니 거의 끝나가는 모양이다. 선생님의 질문에 연신 대답을 해대는 쪽의 목소리도 그대로다.

주파수를 조금 내려본다. 가장 먼저 들려오는 것은 기침소리. 환절기라 감기에 유의하러던 담임선생님의 말씀을 무시하던 친구의 기침소리다. 답답고 아직 남들이 안입는 하복을 꺼내 입고 다녔으니 걸릴만도 하지. 양호실에 가야겠다더니, 공부욕심에

못간 모양이다. 똑한 놈, 나는 입을 삐죽여 본다.

어느새, 내 의식과는 상관없는 소리들이 내 라디오를 타고 들어오고 있다. 펜들이 부딪혀 달그락 거리는 소리, 책장을 넘기는 소리, 사각 거리는 연필소리. 문득 신기한 생각이 든다. 선생님의 강의와 내 쪽의 대답, 바람의 간지럼에 서로의 몸을 부딪쳐가며 웃어대는 나무의 비명, 운동장에서 들리는 구령소리, 음악실에서 들려오는 노래소리. 뒷자리 녀석의 기침소리. 무의미한 행동들이 만들어 내는 작은 소음. 아무런 연결고리도 가지지 못한 이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런 일상이란 것을 만들어 내고 있던 사실에 나는 놀라고 있을 것이다.

조화,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말하는 조화일런지도 모르겠다. 아주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 놓여지는 톨니바퀴 같은 것.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맞물려져 돌아가는 말이다.

비명, 평음, 괴성같은 것들에 그것은 문득 멈춰지기도 하지만 곧 아무일 없다는 듯 다시금 돌아가곤 한다.

“아! 아! 그만 자라. 응!”

걸디란 펜이 내 옆구리를 툭툭 찌러 낸다. 한심하단 듯한 목소리도 가미되어서 말이다. 하는수 없이 라디오의 전원버튼을 누르고 눈을 뜬다.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의 쪽이 내 옆으로 슬그머니 잘 정리된 문학책을 틀어 밀어준다.

수업은 아까 끝났는지 선생님이 뒤쪽창가에 앉아 계신다. 3교시의 끝음을 깨우지 못한 아이들의 팔에 머리를 묻은 채 잠을 청하고 있다.

“보라야, 눈 감아봐.”
“왜?”
“멋진 소리가 들린다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귀를 기울여 봐.”
“그래.”

눈을 감고서 귀를 쫑긋 세운 내 쪽을 보며 나는 입가에 미소를 띄어 본다. 부처의 열화미소와 닮아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 뺨까지 채워가던 원고지를 뒤로한 채 나는 눈을 감아본다. 나무의 웃음소리도, 녀석들의 구령소리, 노래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나는 행복함을 느낀다.

늘 혼자서 만들어가던 원고지 넘기는 소리, 글을 쓰고 퇴고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던 한숨 소리가 여기에선 낯선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잠시 뒤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조금은 특별한 순간인 지금이 언젠가 나의 삶 속에서 가장 평범한 일상이 되기를 기도해 본다.

상념에 빠지고 글을 쓰며 만들어지는 소리들이 앞으로 펼쳐질 내 인생 속에서 한가득 묻어 나가를 바라보는 이야기다.

어서 내가 있던 일상으로 돌아가야겠다. 나의 목소리와 웃음소리를 기다릴 그들에게로…….

내가 없이도 잘 돌아가고 있을 그 톨니바퀴 사이로 아무일 없었던 듯이 속하니 들어가야겠다.

2학기 국내대학 학점교류 시행

2002학년도 2학기 국내 자매대학과의 학점교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교류대학 : 한국의국어대학교 (학부과정)
2. 교류학기 : 2002학년도 2학기
3. 학점인정 : 최대 17학점
4. 신청자격 : 2002학년도 2학기 등록예정인 4학기 이상 이수자로서, 누계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재학생 (단, 졸업예정자는 제외함)
5. 신청서류
 - 가. 수학신청원(소정양식) 1부 - 한국의국어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hufs.ac.kr>) 참조
 - 나. 수학계획서(소정양식) 1부
 - 다. 재학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6. 원서교부·접수 : 2002. 6. 3(월) ~ 6. 28(금), 국제교류실
7. 기타사항
 - 가. 교류 해당학기의 등록금은 본교에 납입해야 한다.
 - 나. 교류학생은 한국의국어대학교의 제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다.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한국의국어대학교의 학사일정 및 절차에 따른다.

※ 기타사항은 국제교류실 ☎ 02-2260-3876, 본관 2층)로 문의 바랍니다.

낙산학사 개장

1. 개장기간 : 2002. 7. 1 (월) ~ 8. 18 (일)
2. 접수기간 : 2002. 6. 12 (수) ~ 6. 14 (금)
3. 배정방법 : 실배정은 선착 접수순으로 배정하며 별도의 추첨은 없음.

4. 접수처, 시설사용료 및 캠퍼스별 배정 내역

학 생 실	
실별 수용인원	20명 7명
기존(사용일수)	3박 4일 3박 4일
사용관리비	1인 1박 ₩1,500 - (예약금: ₩10,000/1실)
캠퍼스별	서울 경주 서울 경주
배정	5실 1실 6실 2실
접수처	각 캠퍼스 학생복지실 ☎(2260-3047) 학생복지실 ☎(770-2049)

구분	신청 기간	구분	신청 기간
1회	7월 1일 ~ 7월 4일	9회	7월 25일 ~ 7월 28일
2회	7월 4일 ~ 7월 7일	10회	7월 28일 ~ 7월 31일
3회	7월 7일 ~ 7월 10일	11회	7월 31일 ~ 8월 3일
4회	7월 10일 ~ 7월 13일	12회	8월 3일 ~ 8월 6일
5회	7월 13일 ~ 7월 16일	13회	8월 6일 ~ 8월 9일
6회	7월 16일 ~ 7월 19일	14회	8월 9일 ~ 8월 12일
7회	7월 19일 ~ 7월 22일	15회	8월 12일 ~ 8월 15일
8회	7월 22일 ~ 7월 25일	16회	8월 15일 ~ 8월 18일

5. 유의사항
 - 가. 본교 재학생 외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나. 실배정은 선착 접수순으로 하며 별도의 추첨은 없습니다.
 - 다. 시설사용료 및 예약금은 접수시 학생복지실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된 예약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라. 취소도구는 개인별 지원하여야 합니다.
 -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학생복지실로 문의 바랍니다.
 - ※ 7월 1일 개장전 이용은 시설관리팀에서 선착 접수순으로 배정합니다.

대학원 연구논집 원고 모집

2002학년도 대학원 연구논집 제32집 발간을 위한 원고를 모집하오니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1. 논문집 명칭 : 대학원 연구논집 제32집
2. 제출자격 : 본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휴학생 및 수료생
3. 연구논집 원고 모집분야
 - 가. 인문사회전공 : 불교학, 철(인도철), 사학, 미술사학, 윤리학, 교육학, 법학, 정치학, 행정학, 경찰행정학, 사회학, 북한학, 경제(노동경제)학, 경영(정보관리)학, 무역학, 회계학, 지리학, 미술학, 연극영화학 등
 - 나. 자연과학전공 :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통계학, 반도체과학, 공학, 농학, 임학, 조경학, 가정학, 체육학, 한의학, 의학 등
4. 제출물 : 원고 3부, 디스켓 1장(한글 96 이상으로 작성)
5. 제출기한 및 제출처
 - 2002. 6. 3(월) ~ 8. 23(금) 대학원 교학부 ☎ 2260-3093~5
6. 원고작성요령
 - 대학원홈페이지(www.dongguk.edu/gs)의 공지사항 참조할 것
7. 대학원 연구논집 제32집 시행 일정
 - 가. 원고접수 : 2002. 6. 3(월) ~ 8.23(금)
 - 나. 원고심사 : 2002. 9월
 - 다. 원고교정 및 편집 : 2002. 10월 ~ 12월
 - 라. 연구논집 제32집 발간 : 2003. 1월 예정

언어연구교육원 여름특강

▶ 강의기간 : (1차) 2002년 6월 17일(수) - 2002년 7월 12일(금)(4주)
(2차) 2002년 7월 29일(월) - 2002년 8월 23일(금)(4주)
▶ 접수 : 2002년 6월 3일(월) 부터
▶ 문의 및 접수 : 언어연구교육원 사무실(해학관 1층)
전화:2260-3470/1 팩스:2260-3691

- ◎ 영어 회화: (High-Beginning, Intermediate, Upper-Intermediate)
 - 시 간: 8:00-9:30 (월,화,수,목), 10:00-11:30(월,화,수,목), 12:00-13:30(월,화,수,목)
 - 확실한 placement test를 통한 단계별 수업 진행 (개강 test 실시)
 - 다양한 주제에 관한 가장 실용적이고도 시사적인 생활 영어 습득 코스
 - 수강료: 8주 과정-14만원(일반15만원) / 4주 과정-7만원(일반 8만원)
- ◎ 독해를 위한 대학 영문법
 - 시 간: 10:00-11:30(월,화,수,목)
 - 대학교재 독해를 병행하는 최의 코스[자 Reading의 토대가 되는 영문법 강좌]
 - 정확한 회화 구사와 작문을 위한 초기 투자 필수 프로그램
 - 수강료: 8주 과정-14만원(일반15만원) / 4주 과정-7만원(일반 8만원)
- ◎ Writing & Speaking
 - 시 간: 10:00-11:30(월,화,수,목) 12:00-13:30 (월,화,수,목)
 - 다양한 테마에 대한 토론과 영작을 통한 고급영어의 표현력과 구사력을 배양
 - Writing Skill 배양을 위한 자상한 첨삭 강의와 소수를 위한 특별 영어회화 수업을 동시에 들을 수 있는 최의 기회
 - 수강료: 8주 과정-16만원(일반17만원) / 4주 과정-8만원(일반 9만원)
- ◎ Screen English
 - 시 간: 12:00-13:30 (월,화,수,목)
 - 영화를 통해 미국 현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영어와 문화를 통시 습득할 수 있는 강의
 - 듣기, 발음, 회화 등 드라마를 소재로 학습하는 종합적인 강의
 - 수강료: 7만원(일반 8만원)
- ◎ CBT TOEFL
 - 시 간: 11:00-12:30 (월,화,수,목)
 - 유학 준비 및 영어 실력을 다지고자 하는 학생을 위한 강좌로서 CBT(Computer-Based Test) 위주로 진행되는 종합 토크 강의
 - Listening, Written & Structure, Reading, Writing의 완벽 대비
 - 수강료: 8주 과정-14만원(일반15만원) / 4주 과정-7만원(일반 8만원)
- ◎ CBT TOEFL RC특강
 - 시 간: 16:00-17:30 (월,화,수,목)
 - What is Reading Comprehension!
 - TOEIC, TOEFL 독해, RC파트의 기초확립을 위한 최의 코스. 철저한 1:1 지도
 - 수강료: 4주 과정-7만원(일반 8만원)
- ◎ 모의 토익 테스트 무료 응시 혜택
- ◎ 2과목 동시 수강 시 1만원 할인 혜택
- ◎ 전 수강생 토크 무료 수강 혜택
 - 홈페이지에서 6/10 - 6/21일 오후 3시까지 신청
- ◎ 교재는 제공되며, 가지고 있는 교재라도 환불되지는 않습니다. 수강료 환불 시 교재반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 ◎ 환불은 개강 전이며, 개강 후 9일간 80% 환불, 3일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폐강 시는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 연가는 다음 특강 한 차수만 가능하며, 개강 후 3일 이내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거나 바랍니다.

소나기

강추! 나만의 학점 관리비법



△교과서에 충실했어요.

△꾸준한 복습과 예습을 연계하여

나만의 노트를 만든 후 복습에 태운다.

△강의시간에 열심히 듣는거죠! 뭐~

△대상과목에 대한 완벽한 제압!

△시험공부를 2달 전부터!!!

△1. 한번 읽어보고

2. 전날 밤샘하고

3. 알아서 커닝추가!!!!

△교수님 저서에 싸인 받기.

△신경 안 쓴다. 학교 맛고 즐기기.

△베이스 깔아줄 사람이 많은 수업을 듣자!!

△출석이 곧 학점이다.

△학점은 버락치기다!!!

△죽어도 결석 안하고 수업시간 10분 아니

1분전에 와서 지각 체크라도...

△모두 시험 포기하고 월드컵 봅시다!

△수업시간 졸지만 앞으면 기분은 나으셨지.

△교수님 말씀 토씨하나 빠지 말고 기억하라!

교수님 끝까지 확이라도 어긋나지 말고

적어라!!!

△우리에게 학교가 있는 한 난 영원히 학교다.

△1. 요령피지 않는다.

2. 모범답안 작성한다.

3. 무조건 외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리포트 빼앗아 종합해서

나만의 것으로 업그레йд!

△교수님과 의 열연, 학연 등 모든 관계를

동원하고 그대로 안되면 열심히 얼굴도장을...

△절대 남 따라 밟치지 않을 것.

△자기에 맞는 컨디션 조절 필요.

△당연 버락치기! 출석도 일정수준.

그리고 레포트도 잘 내야겠지요.

△남들 몰래 교수 찾아가 레포트 먼저 내기.

△교수님 눈만 열심히 마주치기.

△시험에 있어서 능률을 무시할 순 없다.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최선을 다하고 그 외의 시간은 최대한 즐겨라.

△시험은 공란 없이 꼭 채워서 답안을 적는다.

△한번 놀 때 죽도록 논다. 그렇게 놀다보면

불안해서 공부할 마음이 생긴다.

△옛 선인들이 말씀하셨다 위편삼절이라고.

△수업 집중! 출석 완벽! 과제 충실!

△영어회화 교수, 내겐 예쁜 미소의 H가 전부다.

△학점을 관리한 적이 없으시러.

△아무 말도 필요없습니다. 이 두 글자면... 공부!

△도서관에서 속삭이고 나면 학점이 보여요.

△학문은 암기가 아니다. 느끼면 된다.



동악광장

목먹길

축하합니다

△97태광 입대를 축하합니다. -국교97터프컬
△산림자원학과 상수♡수연 축하합니다.
△6월 1일 철학과 송창호 생일 축하합니다.
△군대간 원제와 합수의 1주년을 축하합니다.
△동별 99동기들
△6월 3일 창수와 숙연 4주년입니다. 축하합니다.
△오늘은 경진이의 생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탈 공연 무사히 마친 것을 축하해요.
△공근표 생일(3일) 축하합니다.
△해준형
△6월 5일 배수와 정우의 3주년을 축하합니다.
△우영이의 22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불교학 전공일동

수고하셨습니다

△P.T.P 장립제 준비 수고하셨습니다.
-29기 누나들
△사학과 동문체육대회 준비하신 집행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태종
△'Youth-Hostel 22회 장립제' 22기·23기
후배들 정말 수고했었어요.
-21기 원선미

자기 행동에 책임질 줄 아는 학생이 되자

92년도부터 교직원인 된 지금까지 대
략 7년이라는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다. 3개월 전 대학원생이자 조교로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학생들의 모
습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변화 중에는 특히 부정적인 면이
많은 것 같다.
먼저 가장 심각하다 느끼는 문제는
자신이 있던 자리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행동에 있다. 강의를 끝나고
보면 책상이나 바닥에 쓰레기가 널려있
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이런 장면
은 이제 익숙한 현상이 되었다.

언론의 '냄비' 식 보도를 바라보며

월드컵이 시작됐다. 세계인의 시선
은 지금 한국이란 나라에 집중되고 있다.
16강을 염원하는 사람들은 히딩크
에게 열광하고 있다. 그를 내세워 광고
를 하고 제스처 하나도 그냥 넘어가진
않는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언론의 '히딩크
키우기' 식 보도를 보면서 히딩크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가 생각났다. 당시 사
람들은 연이은 대표팀의 출전을 두고
가만있지 못했다. 언론은 일본의 트루시
에 감독과 히딩크를 비교하며 '히딩크
죽이기'를 시도했다. 특히 '히딩크 감독
은 한국축구를 너무 모른다'부터 시작
해 한국 축구를 비방하는 글까지 온통
히딩크 죽이기였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하는 희망 ... 제8요일

'첫째 날에 신은 태양을 만들고, 둘째
날에 신은 바다를 만들고...'
조지의 내레이션으로 시작하는 영화
제8요일의 첫 장면은 성서의 창세기 부
분과는 사뭇 다르다. 그것은 조지의 처
지에서 그가 접하는 사물들을 두고 상
상의 내래를 펼쳤기 때문이다. 영화를
보는 내내 앞에 나오지 않은 여덟 번
째는 뭘까? 고민하면서 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조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진한 감동이 밀려왔다. 조지는 판도
라의 상자 끝에 나온 '희망' 과도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그는 다윈증후군을 앓
고 있었기 때문에 신만이 '그는 보기에

음료수나 커피를 마시는 것은 자유지
만 문제는 그 후 빈 캔이나 종이컵 등
을 그대로 강의실에 버리고 나간다는데
있다. 강의실마다 쓰레기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이런 쓰레기들을 치
우기는커녕 그냥 방치하는 것을 당연하
게 여기고 있다.
강의시간에 수업을 듣는 태도에도 문
제가 있는 듯하다. 옆 사람과 잡담하는
것은 애교로 여겨질 정도다. 강의시간에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
를 보내고 심지어 시험시간에도 통화를
하는 학생들도 있다. 이는 교수님을 무

때문에 히딩크 죽이기는 그리 오래 가
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히딩크를 비난
하던 수많은 언론의 목소리는 어느덧
부드러운 찬사로 바뀌고 있다.
두렵다. 만약 월드컵에서 한국이 16강
진출에 실패한다면 히딩크, 그리고 우리
선수들은 어떻게 될까?
물론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은 중
요한 일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무조건적
인 비난이 아닌 한국 축구를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야 한다. 단지
주어진 성적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결과가 어찌
되든 감독과 선수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는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하는
바라이다.

때문에 히딩크 죽이기는 그리 오래 가
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히딩크를 비난
하던 수많은 언론의 목소리는 어느덧
부드러운 찬사로 바뀌고 있다.
두렵다. 만약 월드컵에서 한국이 16강
진출에 실패한다면 히딩크, 그리고 우리
선수들은 어떻게 될까?
물론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은 중
요한 일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무조건적
인 비난이 아닌 한국 축구를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야 한다. 단지
주어진 성적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결과가 어찌
되든 감독과 선수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는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하는
바라이다.

때문에 히딩크 죽이기는 그리 오래 가
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히딩크를 비난
하던 수많은 언론의 목소리는 어느덧
부드러운 찬사로 바뀌고 있다.
두렵다. 만약 월드컵에서 한국이 16강
진출에 실패한다면 히딩크, 그리고 우리
선수들은 어떻게 될까?
물론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은 중
요한 일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무조건적
인 비난이 아닌 한국 축구를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야 한다. 단지
주어진 성적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결과가 어찌
되든 감독과 선수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는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하는
바라이다.

최태경 (예술대 문창2)

시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옆자리의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동이다. 급
한 통화라면 강의실 밖으로 나가서 해
도 되지 않을까? 열심히 강의하시는 교
수님 앞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학생
들을 보면 어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서
글픔이 느껴질 정도다.
대학이 고등학교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학생들이 성인이라는 점일 것이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며 남에게 피
해를 주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 진정
한 성인이 아닐까?

K교수 사건에 대한
올바른 시각 가져야

오는 7월 5일이면 K교수 성추행 사건
이 발생한지 2년이 된다. 그동안 사건의
해결과정은 성추행 혐의로 K교수가 해
임이 되었다가 복직이 되고, 형사 소송
에서 무혐의로 기각되는 등 바쁘게 진
행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사
건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느낌
을 많이 받았다. '피해자도 잘못이 있지
않느냐, 술 마셔서 그런 건데 너무 예민
한 것은 아니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학생도 있었다.

비록 피해자에 대한 질시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다음 학기 K교수에게 사
회화 교양 수업과 전공 수업이 배정된
것을 보며 다시 한번 험겨운 과정을 거
쳐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정말 대다수의 학생들이 공감
하지 못한 채 몇몇 학생들의 움직임에
그친다면 성추행 사건이 올바르게 해결되
지 못할은 당연한 일이고, 만일 학내에서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다고
해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사건이 불려
지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제 1화기도 거의 끝나간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K교수 사건은 여전히 진행
형이다. 공문화하기 어려운 성폭력 문제
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누구의 입장에서 서서 봐야 하는
지에 대해 이번 방학을 통해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양김유미 (총여학생회 연대사업국장)

지나호 동대신문을 읽고

체육부 관련 기획 인상적

매년 봄이면 목역을 불태우는 진달래
꽃의 함성처럼 동대문운동장에서 이어
져 교정을 뒤덮었던 학생들의 힘찬 응
원가와 승전의 함성이 낯설음을 느끼는
듯 하다. 신학기를 맞이하여 한 가족이
된 새내기들을 위한 잔치의 자리이기도
하고 동국인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갖게
해 주었던 것. 그것은 불철부처 개마되
는 대학야구경기가 아니었나 싶다.

그러나 80년대 대학가를 풍미했던 대
학야구는 프로스포츠에 치우친 언론의
보도와 체육정책으로 세인의 관심을 물
론이고 대학인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져
침체상태에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본교
에서 육성하고 있는 축구부와 농구부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학간의 경기가 개최
되는 구장에 나가보면 관전하는 사람이
나 응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이 쓸쓸하
기만 하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굶음
의 혈기를 발산할 수 있는 무대를 잃은
것 같아 아쉽기도 하다.
이러한 때에 동대신문에서 본교의 체
육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3회에 걸쳐
각 부의 전력을 분석하고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 등을 기사화 한 것은 선수들
이나 지도자들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일



<제1344호 5월 27일자>

낮은 곳 볼 수 있던 기회

지나호 동대신문을 접어 두고도 유난
히 기억에 남아 가슴 한 칸을 저리게
한 기사가 있었다. 아마 그것은 아이들
과 약자에 관한 것이고 또 지금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월드컵에 관련된
기사였기 때문일 것이다. 월드컵에서
소외된 부분을 다룬 이 기사는 한창 들
끓고 있는 화려한 축제에 대한 관심을
조금은 낮은 곳으로 시선을 돌려볼
필요성이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사람과 관심 속에 보호받아야 할 아
동들이 거대 기업에 노동을 착취당하
고, 전 세계인의 화려한 축제라고 하지
만 장애인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열악한
현실들, 월드컵을 앞에 두고도 파업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과 그들의 파업을
비판하는 소리들, 그들은 생존을 위한

힘겨운 목소리일텐데 월드컵은 노동자
들에게 숨죽이고 있기를 바란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
여야 할 지 이 기사가 흘러준 소재는
내게 잠시 생각을 하게 해 주었다. 그
러나 더 많은 부분을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월드컵의 화려
한 부분에 취해 사각지대는 볼 수 없게
될 테니까 말이다. 많은 아이들, 장애
인, 노동자들의 눈물겨운 희생이 월드
컵을 빛내주고 있는 후광인 것일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이들의 행보에 찬사를 보내고 그
들의 노력이 헛되지 되지 않길 바란다.
적어도 우리 사회가 약자에게 너무 강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잘 처러
진 밥상을 받고 있는 지극히도 평범한
방관자들이 되어 있음을 느껴야 한다.

김도현 (경주캠 지역정책연구소 조교)



— 우리말을 사랑하는 동국인이 됩시다 —

금주의 식단

Table with columns for '서울캠' (Seoul Campus) and '경주캠' (Gyeongju Campus), and rows for dates from 6/3 to 6/7. It lists menu items like '돈육짜개', '시골우거지탕', '갈비탕', etc., and their prices.

Table with columns for '학생회관' (Student Union Building) and rows for dates from 6/3 to 6/7. It lists menu items like '김치민두전골', '동태매운탕', '햄스터찌개', etc., and their prices.

은방길

축하합니다

△NW & RH와의 핑크빛 사랑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KS 인종 마크
△대한민국 월드컵 16강 진출을 정말로 축
하합니다. -에언자
△사랑하는 민영. 생일 축하해. 글구 영원
히 사랑해. -취야 오빠가
△순정야. 생일 축하해.
△동국한의 본1. 월드컵 과제 선포하다.
△오 선생님(94), ♡이미영(01) 1년 축하합
니다.
△희은이랑 인태오빠, 300일 무지 무지 축
하해요.
△AJ의 알바 시작 축하해.
△친구 허씨야... 취업 축하해.

수고하셨습니다

△News week 후배님들. 뉴스위크인의 날
행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니다. 뉴스위
크 화이팅!
△한동 선배! 짧은 시간이었지만 애쓰셨
어요.
△1학기동안 열정적인 강의 해 주신 강문
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원이~ 물 많이 먹느라 수고했다!
△항상 나를 챙겨 준 허선영, 수고했어+
고미워.
△학생회관 식당 아주머니, 밥 많이 주서
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윤석이 시험 잘 봐! 파이팅!
△고·감·실 1학년들아 1차 테스트하느
라 수고수고. -준석
△학군단 3학년 동기들아~ 남은 1년차 생
활 열심히 하자. -성기상·이민우
△성미야 공부 열심히 해서 기말고사 잘
보그라. -WG
△중국 한의 경약 연구 단체 ♥1 2주년이
임박해 옵니다. 열심히 합시다!!
△7월 한달 동안 수영 열심히 하자! 다이
아트 성공!!!
△민호야 열심히 인사 나누자.
△DUTC 열심히~ 열심히~

그리고...

△화학과 1학년 강관희. 기말시험 잘쳐라.
△한문학과 1학년 양을 사랑합니다.
△망치 소녀! 밥 좀 남기지 마라!
-개구리(뚜꺼비)
△광수야~ 아프지 마렴. 내가 담에 팔빙
수 사 줄게...
△난 나다! 열심히 할거!



관객 무시하는 영화, 레디~스탑!

‘최악의...’ 시상으로 흥행위주 한국영화에 일침

영화 상영 내내 ‘스크린도 TV처럼 채널을 돌려버릴 순 없을까’ 하고 생각했던 사람, 화려한 홍보전략에 감쪽같이 속았다고 느꼈던 사람, 그리고 작품성 있는 영화는 외면한 채 “공정히 하겠다”는 약속만 반복하는 대중상 영화제가 점점 지겨워지는 사람.

이 같은 사람들을 위한 영화제가 열렸다. 대중상 영화제 다음 날인 지난 27일 제2회 레디스탑 영화제(이하 레디스탑)의 막이 오른 것.

아카데미 시상식 전날 열리는 골든 라즈베리 영화제의 발상에 착안한 이 영화제는 네티즌과 전문심사위원단의 투표를 통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최악의 감독, 작품, 남우주연, 여우주연, 인기상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조폭마누라’가 최악의 작품상, 감독상, 인기상을 모두 차지하는 ‘영예’를 차지한 한편 최악의 남우주연상에는 ‘2009 로스트 메모리즈’의 장동건이, 최악의 여우주연상에는 ‘뽀뽀타임’의 김지현이 선정됐다. 김유민 감독의 ‘노랑머리’는 수상작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남우주연상을 뺀 나머지 후보에 모두 올라 고른 성적을 보였다.

특히 이번 영화제는 지난해 1천 표 정도에 그쳤던 각 부문의 네티즌 투표수가 2만7천 표를 훌쩍 넘기는 등 네티즌의 파워가 돋보였다.

이에 박경원 심사위원장은 “네티즌들의 투표를 통해

가려진 각 부문 5편의 영화만을 놓고 심사위원들의 투표표를 진행했으므로 오늘의 상은 네티즌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레디스탑의 힘이 네티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여러 번 표를 던질 수 있어 발생했던 네티즌들의 ‘몰표’ 문제는 수상작 선정과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여지를 남겨둬 앞으로 반드시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레디스탑 측은 시상식이 끝난 뒤 관객과의 뒷풀이 자리를 마련해 레디스탑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남기훈 사무국장은 “한국영화 시장이 확대 될수록 흥행에 치우친 영화가 늘고 있다”며 “최악의 영화 선정을 통해 이러한 영화계 풍토에 일침을 가하는 일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관객으로 참여한 송승범(22) 씨는 “대형 영화제에 비판적인 시각을 잃지 않는 대안 영화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열린 제39회 대중상 영화제는 어느 때보다 조촐했다. 프랑스와의 축구 경기시간과 겹쳐 역대 ‘최악의 시간대’에 진행된 데다가 수상작 중 상당수가 시상식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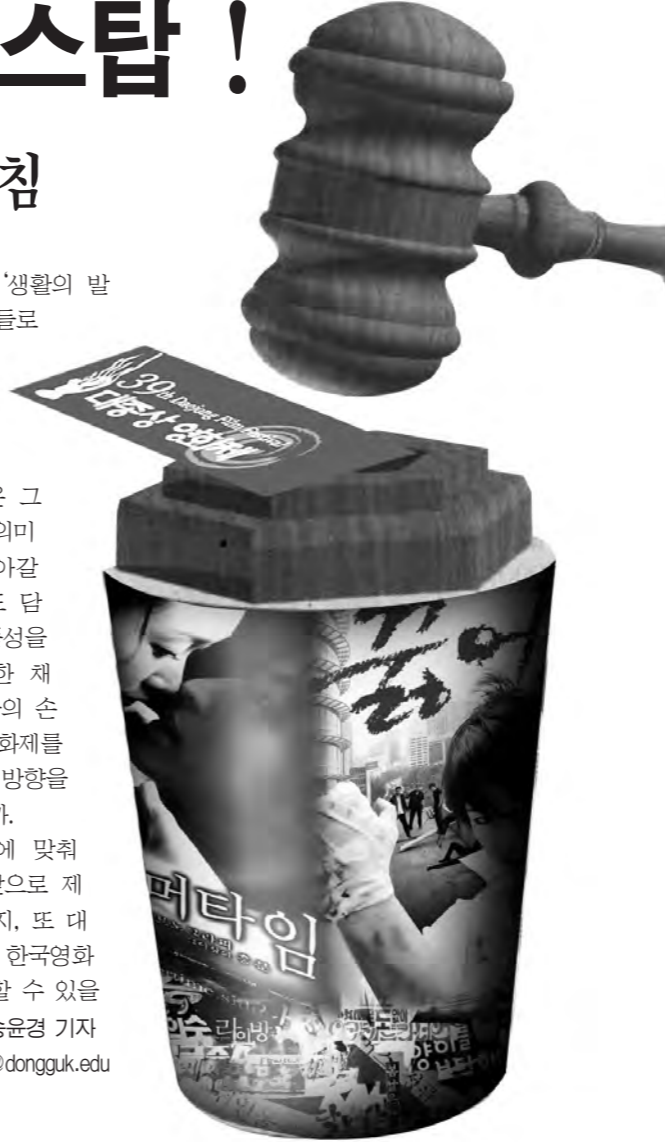
게다가 몇 년째 대중상을 괴롭혀 온 공정성시비도 다시 불거져 나왔다. 작품성과 흥행 모두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로스트 메모리즈’가 14개 부문의 후보에 오른

반면 ‘복수는 나의 것’ ‘생활의 발견’ 등 대부분의 평론가들로부터 작품성을 인정 받은 작품은 거의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

‘상’을 수여하는 것의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 그러나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는 외면한 채 상업성에 치우친 영화들의 손을 들어주는 대중상 영화제를 보고 한국영화의 바른 방향을 감지한 이가 얼마나 될까.

대중상 영화제 시기에 맞춰 치러지는 레디스탑이 앞으로 제대로 ‘상’을 줄 수 있을지, 또 대중상영화제를 대신하여 한국영화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송윤경 기자 itsj@dongguk.edu



문화단신

인권그림 전시회

우리나라 양심수들을 위해 탄원서를 쓰고 6월 항쟁에도 직접 참여한 국제 인권운동가 단 존스(Dan Jones)의 그림전이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혜화역 내 전시관에서 개최된다.

인권운동사랑방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전시회에서는 영국 최대 노조인 UNISON 본부에 있는 대형벽화 ‘노동조합의 원조(Union Aid)’를 비롯해 영국 파시스트 오스월드 모슬리에 맞선 1936년 민중 50만 명의 투쟁을 그린 ‘케이블 스트리트 기념식(Cable Street Anniversary)’ 등 총 50여 점의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의 741-5363

라틴 아메리카 영화제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는 오는 13일부터 서울 아트시네마(구 아트선재센터)에서 라틴 아메리카 영화제를 마련한다. 상영작은 서울아트시네마가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거쳐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 등 총 7개국의 주한 대사관과 함께 고른 것이다.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하루 5차례씩 상영되는 이 영화제는 ‘방황’ 등 멕시코의 장·단편영화 11편과 콜롬비아 4편, 파라과이 4편 등 총 25편이 소개된다. 이 밖에도 여러 나라의 감독과 제작자가 방한해 자신들의 작품세계에 대해 이야기 한다. 문의의 720-9782

클릭! - 언니네(www.unninet.co.kr)



로 풀이한 ‘기획특집’. 현재 링크된 ‘나는 비혼여성입니다’는 비혼이 ‘아직’ 결혼하지 않음을 뜻하기 때문에 독자들에게는 비혼(非婚)이라는 말이 어울릴 것이라는 특목한 의견을, 질문과 답변으로 재미있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타로의 radio ga ga’와 같이 회원들이 직접 진행하는 ‘방송국’도 언니네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코너이다. 대중가요부터 인디밴드 곡까지 각양각색의 음악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낮게 읊조리는 DJ의 멘트가 여성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외에도 스스로 주제를 정해 올리는 ‘자기만의 방’이나 여성계의 행사일정을 정리한 ‘여성주의 달력’, 여성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상식까지 콘텐츠의 다양화를 시도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편안한 상태에 게 고민을 털어놓고 싶어한다. 페미니즘 웹진 언니네가 많은 이들의 참여 속에 꾸준히 이어져 오는 것도 바로 이러한 편안함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도 여성들에게 편안하고 아늑한 휴식처, 언니네가 되길 바란다.

문화부 culture@dongguk.edu

의식을 디자인하는 사람들

3 타이포그래피 디자이너 안상수

살아 숨쉬는 글자 되어 나빌레라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모두 몇 자인지 아십니까?” 무작정 길거리로 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것도 받침표를 화려하게 수놓은 영문간판 앞에서 울긋불긋한 영문터치표를 입고 의기양양하게 걸어다니는 젊은이들에게 말이다. 과연 몇 사람이나 정답을 이야기할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가우뚱 거릴 것이다.

하지만 여기 자모의 수를 아는 것은 물론이요, 그것을 디자인과 예술의 모티브로 삼고 있는 이가 있다. 바로 새로운 글꼴을 개발하는 한글 타이포그래피 디자이너 안상수(50) 씨.

타이포그래피란 문자가 관련된 디자인의 모든 분야를 아울러 일컫는 용어이다. 안 씨가 현재방에서 우연히 타이포그래피 관련 책을 보고 이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타이포그래피의 불모지였다. 글자란 텍스트의 내용만 전달할 수 있으면 그만인 것이었고, 그 어떤 상징성이나 아름다움도 없는 ‘죽은’ 문자였다.

“글자란 문화와 정보를 담은 그릇이예요. 그러니까 타이포그래피는 그 그릇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고 아름다움을 부여하는 일이지요.”

지난 25년 동안 안 씨는 한글이 얼마나 아름다든지, 한글을 이용한 디자인은 또 얼마나 다채로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국내외의 한글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인식을 한

단계 높였다. 1985년에는 네모반듯한 천편일률적 글꼴에 아가자기하고 시원한 멋을 살려 안상수체를 개발했으며 90년 이상체, 92년 미르체, 93년에는 마노체 등 현재까지도 ‘살아 숨쉬는’ 다양한 글꼴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글자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독특한 하나의 예술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25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서울 로템 갤러리 전에 열리는 ‘한글상상전’을 통해 안 씨는 한글 자모 28자가 하나의 회화나 조형물로도 손색이 없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셔츠와 넥타이, 집 대문 등을 한글문자로 도안해 미술작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한글의 아름다움을 적극 활용하고 보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자신의 이름 첫 글자 ㅇㅇㅇ 모양을 따 이발을 하는 등 다분히 예술가다운, 그러나 한글을 진정으로 사랑해야만 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창조의 모범으로 세종대왕을, 글자운용의 선배로서 시인 이상을 존경한다는 안상수 씨.

조금 엉뚱하기도 한 그는 한글에 대해서는 유난히 할 말이 많은 디자이너이다. ‘글자들, 공백에 맞서 있다’는 작품을 통해 현재 우리가 익숙하게 쓰고 있는 들어쓰기와 띄어쓰기가 영문수입으로 잘못 쓰이게 된 것이라는 지적도 내놓지 않을 정도로 말이다.



또한 “직선과 곡선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ㅎ’이야말로 가장 한글다운 한글”이라며 “모음과 자음이 합쳐져야 비로소 한글이 제 모습을 갖추는 것처럼 한글의 매력은 바로 조화”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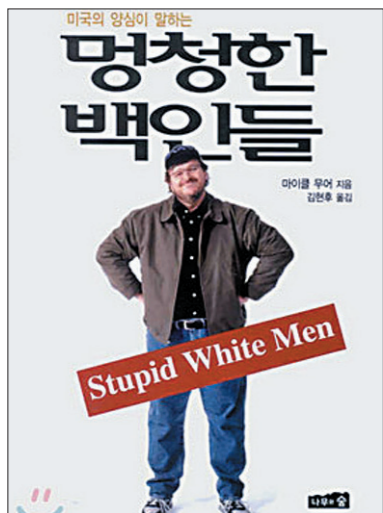
최근 영어 공용화, 한문 혼용화 등 세계화를 앞세운 언어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에 앞서 우리의 한글사랑 태도부터 돌아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맺은 한글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아름다움을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타이포그래피 디자이너 안상수 씨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매체비평

도서 편 - 명칭한 백인들

“명칭한 백인들 따라 명칭해지는 한국인들”



날카로운 풍자로 부시정권을 비판하는 '명칭한 백인들'.

“명칭한 백인들”은 영화제작자이자 작가인 마이클 무어가 쓴 책이다. 그는 2000년 11월 7일, 미국 플로리다 주의 선거관청에서 부시의 손을 들어준 사건을 “순 미국식 쿠데타”라고 부르며, 이러한 쿠데타를 감행한 부시를 비롯한 공화당 각료들과 유권자들을 ‘명칭한 백인들’이라고 부른다.

이 날의 사건 이후, “포라이 백인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국무장관 폴린 파월, 내무장관 게일 노턴, 국가안보보좌관 콘돌리자 라이스까지 감염시켰다”고 말한다. 도대체 53만 9천 893표나 더 많은 지지표를 얻은 엘 고어가 대통령에서 떨어지고, 그 만큼 적게 얻은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마이클 무어가 명칭한 백인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지 선거의 내용이 뒤집혔기 때문만은 아니다. 클린턴의 민주당 정부 시절에 미국의 “정부는 55년의 재정적자에서 벗어나 돈이 남아돈다며 도로, 다리, 차야 등 닦기는 대로 다 수리하겠다고 수선을 떨지 않았다? 공기와 물의 오염도가 수십 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고, 범죄율도 낮고 10대 임신율은 바닥이며, 그 어떤 시절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나? 노인들은 장수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식사도 함께 했고, 북아일랜드에서는 천주교인들과 신교도들이 같이 맥주도 마셨다.”

클린턴은 심지어 남북화해의 무드를 타고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약속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의 미국은 “아무 것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개종같은 나라, 이기적인 남자, 여자, 어린 아이들이 사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만 살아남고, 돈 없는 사람들이 저기 길 걸어가고 있는 보름 사람들에게는 곡물도 없”는 나라가 되었다.

19세기와 20세기 초 미국은 희망의 나라였다.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미국으로 이주해갔고, 정치와 사회, 그리고 경제와 문화에서 미국은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근대화를 시작한 유럽이 식민지 쟁탈전 끝에 자신들끼리 서로서로 죽이는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프랑스와 영국의 손을 들어주어 전쟁을 종결시켰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새로운 폭군의 역할을 담당했다. 미국의 절망을 가장 먼저 인식한 사람들은 유럽의 지식인들이었다. 그들은 마침내 미국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유럽연합을 만들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 즉 미국에 있는 ‘명칭한 백인들’이 아직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포라이 백인 바이러스’는 단지 미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인도 백인도 아니면서 미국인이고 백인인 체하는 ‘명칭한 한국인’들도 있다. 미국의 양심적 지식인이라고 하는 마이클 무어가 스스로 명칭한 백인들이라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포라이 백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미국적 사고는 ‘선’이고, 미국에 반대하는 것은 ‘악’이라고 말하는 포라이의 대표, 부시를 따르는 일단의 한국인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명칭한 백인들’이라는 책은 ‘명칭한 한국인’이 안 되는 길도 있지만, 또한 ‘명칭한 한국인’이 안 되는 길도 있다.

장시기 문과대 영문학과 교수

영웅, 시대를 읽는 문화적 코드

대개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우스개 소리 중 이런 것이 있다.

질문 : 전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아야 할 때이다. 여기 3명의 후보에 대한 정보가 있다.

후보 A.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탁한 적이 있고, 점성술을 가지고 결정을 하며, 두 명의 부인이 있고 졸업배를 피우고 하루에 8 내지 10병의 마티니를 마신다.

후보 B. 두 번이나 회사에서 해고된 적이 있으며 정오까지 잠을 자고, 대학시절 마약을 복용한 적도 있고 위스키 4분의 1을 마신다.

후보 C. 전쟁 영웅이다. 채식기였으며 담배도 안 피우고 경우에 따라 맥주를 가끔 마신다. 불륜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

당신은 어떤 후보를 택하겠는가?

후보 A : 프랭클린 루즈벨트, 후보 B : 윈스턴 처칠, 후보 C : 아돌프 히틀러

물론 이 질문은 공정하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우

리들은 일반적으로 주어진 정보만으로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영웅이 그 시대와 사회가 처해 있는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는 가치나 시대 정신을 몸소 체현하고 상징하는 인간을 의미한다고 했을 때, 우리들은 영웅이란 코드(code)를 통해 그 시대와 사회의 현실에 대해 접근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시대가 상징하고 있는 영웅상은 어떤 울바른 것이었을까?

우리는 위의 질문과 대답을 놓고 뭔가 허를 찔렸다는 느낌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이런 방식의 질문과 그 숨겨진 의도에 매우 불쾌해진다. 그러나 때때로 영웅들은 앞서 본 것과 같이 필요에 의해 정보를 편집하거나 조작하는 불쾌한 방식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오늘날엔 모두가 지탄해 마지않는 히틀러의 경우만 하더라도 한때 스탈린, 처칠과 같은 이들과 차 ‘현명한 자’ ‘천재의 화신’으로, 독일 민족에게 인류의 구원자로 비쳐졌다.

히틀러가 그토록 각광받게 된 원인은 러시아 10월 혁명을 전후하여 ‘유럽을 배회하는 하나의 유령(공산주의)’을 막고자 했던 부르조아 계급의 의도와 강력한 외방의 적을 통해 내부의 적정들을 제거하기 위한

스탈린의 의도와 맞았기 때문이었다.

우리 사회 역시 냉전의 치열한 각축 속에 필요에 따라 상징조작으로 여러 영웅들을 만들어냈다.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 바로 이승복 어린이와 무너지는 독을 맨손으로 막아낸 네덜란드 소년 한스이다. 최근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는 한겨레TV를 통해 인턴 자유공원의 맥아더 동상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우리들은 어려서 맥아더의 전기를 읽고, 그가 얼마나 위대한 영웅인가를 배웠고 그가 계속 UN군 사령관을 지냈더라면 남북이 통일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비뚤해 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미국의 오랜 문민우위 전통에 도전한 군인이었으며, 한반도와 민주 지역에서 즉각적인 핵폭탄 사용을 전제로 무려 26곳의 공격목표를 지정해 폭격을 요구했던 인물이란 사실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다.

냉전과 독재에 사로잡힌 우리 사회는 안보와 번영이라는 미명 아래 이승복, 한스, 맥아더가 필요했던 것이다. 현대에 와서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영웅(운명과 맞서는 존재로서)의 이상적 모습은 그 효력이 다했다.

오늘날 각광받는 안티 히어로(Anti-hero)의 모습, 그것은 공중체의 이상, 신의가 사라진 세상에 대해, 개인이 경험

하는 세속도시에서의 일상이 고전적 세계와 더 이상 동일하지 않다는 인식에 따른 반응이다.

게다가 우리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던 영웅들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다. 그 영웅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 존재들은 과연 누구일까? 나는 최근의 여러 노골적인 광고들을 보면서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는지 깨우치게 되었다. 새롭게 영웅이 된 존재들. 그들은 어떻게 말한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나는 부자야 빠른 뽀뽀’ ‘같이 쓰실 래요. XX카드’.

과연 이들 광고에 등장하는 김정은, 배용준, 박찬호를 사람들은 영웅이라 생각하는 것일까. 아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영웅은 연예인, 운동선수,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로지 그들이 가진 돈이다. ‘사람만이 희망’이라는 헛된 구호만으로 천박한 자본주의 세상에서 인간은 더 이상 영웅의 지위에 오를 수 없다.

전성원
기간 황해문화 편집장



7,80년대 우리문화 속 영웅들

만화탐험, 이데올로기의 세계

7.80년대를 풍미한 만화영화 주제의가 가사에는 유난히 ‘붉은’ ‘흑부리’ 등의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붉은 색은 사회주의, 그 당시 식으로 말하면 ‘공산당’의 상징이고 흑부리는 김일성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런 주제를 가진 만화영화의 내용은 대개 용감하고 멋진 ‘우리 편’ 주인공이 ‘나쁜 놈’들을 물리친다는 줄거리이다. 여기서 나쁜 놈들이 주로 북한사투리를 구사한다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이런 만화영화들이 반공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음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특히 대표적인 반공만화영화라고 할 수 있는 ‘뽀이장군’은 북한군을 사람이 아닌 늑대로, 김일성의 정체는 가면을 쓴 돼지로 그려내고 있다. 이들 악의 무리는 온갖 악행을 일삼으며 선량한 사람들을 위협한다. 그러나 격정할 필요는 없다. 자연 속에서 씩씩하게 자라난 우리의 영웅 뽀이장군이 언제나 이들을 통쾌하게 무찌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영웅은 그 종류도 다양해 많이 되면 또 다른 영웅 ‘각시탈’이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히는 공산당원을 벌한다. 하늘과 육지와 바다, 심지어 우주에서도 ‘붉은 별 군단’을 물리치기 위한 영웅은 존재하고, ‘해들이 대모험’에서는 어린 아이에 불과한 해물도 ‘북괴군’과 맞서기 위해서라면 헬기로 변신해 괴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에 사람들, 특히 만화영

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어린이들은 이 같은 영웅들이 있기에 북극에 있는 무시무시한 악당들의 만행에도 안심할 수 있었다. 적어도 그 당시에는 말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때때로 필요에 따라 영웅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가공의 영웅은 매우 체계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시대의 우화 속에서 정치적 지배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도구로 쓰인다. 하지만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시대는 갔다. 그리고 그 만화영화들은 북한현실을 왜곡하고, 그에 따른 편견을 조장했다는 평을 듣게 되었다.

길고 긴 냉전의 터널을 벗어나 남과 북이 화해와 통일로 가는 오늘, 그 때의 어린이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그들이 열광하고 동경하던 만화 속 영웅들의 모습은 이제 시대의 후광을 잃었다. 더 이상 사상의 아우라에 기댈 수 없게 된 영웅들은 그들을 창조해 낸 만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속의 시간에 갇혀 버렸다.

하지만 시대는 언제나 영웅을 필요로 하기 마련이니 어쩌면 지금, 그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날아와 있을지도 모른다. 주위를 둘러보라. 당신이 열광하는 ‘그’에게는 사상의 아우라가 없는가.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영웅 Here and Now

슛, 국가의 명예를 위해

“우리는 당신을 믿어요” 모두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 아찔한 합성에 둘러싸여 푸른 잔디를 누빌 ‘코리아 팀’.

월드컵이 시작된 지금, 영웅에 가장 어울릴 만한 사람들은 바로 이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일 것이다. 그러나 영웅에게 언제나 못 사람들의 특별한 기대가 있는 법. 현재 우리국민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단연 16강 진출이다. ‘16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16강 진출의 염원은 이제 전 국민의 공통분모가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의 이러한 16강 신드롬에서 자신의 욕구불만을 해소하려는 심리를 읽을 수 있다고 말한다. 축구선수를 영웅으로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다. ‘16강을 달성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선수들에게 영웅적 이미지를 덧입혀 대리만족을 느끼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축구가 이처럼 영웅을 만들어 대리만족을 느끼는 매개체가 됐을까. 여기에는 월드컵이 열리고 있다는 현실적 상황보다 축구 자체가 가진 속성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본교 구술회(윤리문화학) 교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부분에 욕구불만을 갖고 있음에도 오히려 대리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분야는 비정치적인 연애와 스포츠”라고 분석한다.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나타내기 두려워하는 심리

때문에 정치성을 공개할 필요가 없는 분야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게 됐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스포츠 분야는 전무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어 다른 분야보다 영웅이 만들어지기 쉬운데 이 중 가장 전무적이고 원시적인 운동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축구다.

이에 본교 조종훈(영화영상학) 교수는 축구를 “집단 간 영역다툼을 연상케 하는 대리전쟁”으로 표현한다. 더구나 단일종목으로는 다른 어떤 운동경기보다 많은 나라가 출전하는 월드컵을 두고 ‘국제전쟁’이라 칭하는 이들도 있다. 이에 따르면 월드컵 경기에 참가한 축구 선수들은 국가의 명예를 건 전투에 출전하는 셈이다. 우리가 축구선수들을 ‘태극전사’라고 부르는 것 또한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월드컵의 함정이 있다. 축구 선수들을 민족적 영웅으로 받들고 우리나라 팀의 승리를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 국가주의에 빠져들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70년대 이후 축구가 개인을 국가에 길들이는 수단으로 이용된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지적은, 16강 신드롬 속에 빠져 축구선수들을 지나치게 영웅화하는 모습을 다시 살펴볼게 한다.

송윤경 기자
itsU@dongguk.edu

메아리

논픽션 드라마

▲“탁 하니 ‘억’ 하고 쓰러졌다”로 유명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6월 24일 드라마로 방영될 예정이어서 화제다. 특히 하나 드라마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박종철 군의 출신대학과 나이, 이미지까지 흡사한 사람을 캐스팅 했다고 하니 자못 기대가 크다.

▲지난달 28일 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 연합(이하 한총련) 김형주 의장이 충북 청주의 한 대학 앞에서 연행되었다. 올해

한총련이 출범한지 꼭 24일 만이다. 10기 한총련의 이적성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첫 대의원 연행인 셈이다. 이는 6.15민족통일대추전을 앞두고 정부가 한총련, 범민련의 행사 참여를 저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다. 또한 월드컵 이후 전체 대의원들의 대대적 검거가 뒤따를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어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 적용

이 정당한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한총련 역시 내부적으로 5월 축전의 평화적 개최, 이적 판정시 가장 문제시되었던 반방제 통일방안을 6.15공동선언으로 강령개정을 하는 등 한총련 합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검거 이유 중 하나인 ‘10기 한총련 대의원대회 주도’는 이 대회의 주된 안건이 강령과 규약의 개정이었음을 감안할 때 의장 연행은 단연 공권력 남용이라

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다룬 2부작 드라마 ‘박종철’은 고문치사 당일을 전후한 3일, 그리고 이 사건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4.13 호헌조치와 맞물려 6월 민주화운동으로 연결되는 당시 상황을 중점적으로 다룬 예정이라고 한다. 87년 이 일이 일어난 이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은 드라마로 제작될 만큼 한국 현대사의 한 편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은 시민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이 되려 시민에게 함부로 사용될 때 얼마나 위험해 지는지를 잘 보여 주었다. 16년이 흐른 지금, 한총련 김형주 의장 연행사건을 바라보며 국가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유린이 드라마 속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은 드라마 ‘박종철’을 단순히 드라마로 볼 수 없게 한다.

송상민 편집장
ne09292@dongguk.edu